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東烈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

- TV 드라마 <野人時代>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

Study of Images by Type of Character-based Make-up

- In View of Characters Starring in a TV Series Titled "The Days of the Outsiders"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美 愛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東烈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

- TV 드라마 <野人時代>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

Study of Images by Type of Character-based Make-up

- In View of Characters Starring in a TV Series Titled "The Days of the Outsiders"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美 愛

李美愛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2003年 6月

審査委員長 임재영 (인)

審査委員 황동열 (인),

審査委員 이미경 (인)

국문 초록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결정을 하는가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 이를테면,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이윤(利潤), 놀이나 스포츠의 경우에는 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때문에 의사결정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결정이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의 가치를 최대로 하게 하는 결정이다.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는 다양한 자료나 분석들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객관성의 자료가 무색하게 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사람을 선택, 결정하는 것이다. 이력서란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한국의 속담에서도 보듯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상학이 나온 것은 과거 통치자들이 인재를 등용할 때나 일반인들의 혼인, 거래등등에서 이력서 없이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데 기여했음이 분명하다. 관상학은 현실에 근거를 두고 통계학적 방법에 따르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지는 다른 점술(占術)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례를 달리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다채로운 삶들을 극적인 갈등으로 표현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인간은 어떻게 표현되어 지며, 극본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묵묵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극본은 어디까지나 극본에 그치는 것이지 결코 소설의 일종 일 수는 없다. 극본이 소설과 다른 점은 그것이 모두 행동에 의해서 제기된다는 점에 있다. 드라마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그리스어로 ‘행동한다’는 뜻의 동사 드란(dran)에서 나왔듯이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였다. 대화는 행동적인 것으로 그 배후에는 항상 행위가 잠재해 있다. 따라서 극본은

쓰인 언어만으로 완전히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뜻에서 극본은 미완성의 것이다. 그래서 완성을 구하기 위해서 극본은 자연히 연기자를 초대하게 된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하는 드라마에서 등장인물 각각의 캐릭터를 가슴에 적어 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어차피 드라마가 극적인 감정으로 카타르시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어떤 행위든지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배제하여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통계학적인 방법에 따른 인상학에 기인하여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다. 이렇듯 인상학이 캐릭터의 효과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분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상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양면성을 통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하여 변할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미적 가치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TV 드라마 작품의 등장인물 성격의 창조과정을 연구하고,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인상학의 응용부분을 연구해 보았다. 드라마 속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를 살펴보고, 인상학에 근거하지 않은 캐스팅으로 인한 극중 캐릭터의 변화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보았다.

TV 드라마, 영화등은 각 작품의 등장인물이 Type Casting이 아닌 짜맞추기식의 배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격분장도 지속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좀 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대비하고, 학문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섬세하고 감상적인 한국적 분장의 기술개발은 연구사적으로 보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격 분장의 기본이 되는

인상학에 근거를 마련한 체계적인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 구축된 지식으로 인한 분장 기술의 연구개발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통한 다양한 분장 전문 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제 I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제 II 장 분장과 인상학의 이해	5
제1절 분장의 이해	5
1. 분장의 개념	5
2. 분장의 기원	8
3. 분장의 종류	11
제2절 분장의 환경적 요인	15
1. 골상(骨相)	15
2. 색채	17
3. 조명	18
4. 의상	20
제3절 인상학에 근거한 분장론적 이미지 연구	22
1. 인상학 (physiognomy)의 개념과 범주	22
2. 얼굴의 각 부분별 인상학적 이미지	26
제 III 장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이해와 유형별 이미지 분석	47
제1절 TV 드라마와 성격분장의 이해	47
1. TV 드라마의 이해	47
2.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적용	49

3.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과정	52
제2절 TV 드라마 《야인시대》 등장인물 유형별 이미지 분석	58
1. TV 드라마 《야인시대》 기획의도 및 제작방향	59
2. 등장인물의 유형별 이미지 분석	63
3.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분석 결과	85
제Ⅳ장 결론 및 제언	89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색과 감정과의 관계	18
<표 2> 조명에 따라 왜곡되어지는 색채의 특성	19
<표 3> 남자의 얼굴형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27
<표 4> 여자의 얼굴형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29
<표 5> 눈썹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31
<표 6> 눈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34
<표 7> 눈꼬리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36
<표 8> 코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38
<표 9> 입술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42
<표 10> 턱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45
<표 11> 2003년 5월26일~6월1일 기간동안에 방송된 프로그램 순위 10위	58
<표 12> 바보분장의 분장론적 측면	65
<표 13> 기생분장의 분장론적 측면	67
<표 14> 장수,무관분장의 분장론적 측면	69
<표 15> 악역분장의 분장론적 측면	70
<표 16> 설문 응답자 분포 (단위: 명)	87

그 립 목 차

<그림 1> 출생시 두개골	16
<그림 2> 성인 두개골	16
<그림 3> 노인 두개골	16
<그림 4> 피부활선	16
<그림 5> 전면구조	16
<그림 6> 안면근육	16
<그림 7> 삼정(三停)	25
<그림 8> 오악	25
<그림 9> 눈썹의 길이	30
<그림 10> 코 부위별 명칭	37
<그림 11> 분장계획서	57
<그림 12> 코믹 바보역	65
<그림 13> 사극 바보역	65
<그림 14> 바보역	65
<그림 15> 왕눈이역	66
<그림 16> 거지촌 아이역	66
<그림 17> 기생역	67
<그림 18> 소월향역	67
<그림 19> 옥매향역	67
<그림 20> 설향역	68
<그림 21> 설향과 애란역	68
<그림 22> 명월관 기생역	68

<그림 23> 이고역	68
<그림 24> 이의민역	68
<그림 25> 이의방역	68
<그림 26> 나석주역	69
<그림 27> 김좌진역	70
<그림 28> 1996년 변사또역	70
<그림 29> 1988년 변사또역 《춘향전》	70
<그림 30> 일본형사 미와역	70
<그림 31> 일본형사역	70
<그림 32> 한용운 실제	71
<그림 33> 한용운역 (장년)	71
<그림 34> 한용운역 (노년)	71
<그림 35> 스님역 《KBS제국의 아침》	71
<그림 36> 이승만 실제	75
<그림 37> 이승만역	75
<그림 38> 김구 실제	75
<그림 39> 김구역	75
<그림 40> 박헌영 실제	76
<그림 41> 박헌영역	76
<그림 42> 박정희역	77
<그림 43> 김구역	77
<그림 44> 대원군역	77
<그림 45> 오무라역	78
<그림 46> 문달영역	78

<그림 47> 김태서역	78
<그림 48> 이정재 실제	79
<그림 49> 이정재역	79
<그림 50> 이정재역	79
<그림 51> 하야시 실제	80
<그림 52> 하야시역	80
<그림 53> 하야시역	80
<그림 54> 시라소니역	81
<그림 55> 대원군 실제	81
<그림 56> 대원군역	81
<그림 57> 김두환 실제	83
<그림 58> 김두환역	83
<그림 59> 김두환역	83
<그림 60> 김두환역	83
<그림 61> 김두환역	83
<그림 62> 김두환역	83
<그림 63> 장희빈역 (정선경 분)	85
<그림 64> 장희빈역 (김혜수 분)	8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영화·드라마·연극 등의 예술작품들이 ‘인간의 극적인 삶의 투영’이라고 보았을 때, 기획·연출자들은 각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표현하게 할 연기자를 선별하고 결정하게 되는 데, 그 과정들은 첫인상의 느낌을 토대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분장은 이러한 연기자의 인상을 기초로 작품의 의도에 맞는 인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행함으로서, 관객들에게 극중 인물의 성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전달하여, 작품이 주는 감동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장의 역할에 의해 분장사는 연기자를 극중 인물화(化)시켜 시청자나 관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작품 속의 극중 인물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분장작업에 임하여 표현을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제작환경의 문제 그로 인한 분장작업의 창조적 의지에 대한 의욕상실, 분장사 스스로 작업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문제등의 결과로 주먹구구식의 분장작업이 창조성이 사라진 분장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단순기능인에 준하는 도식적인 작업 환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창조성은 결여되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 작품의 경우 ‘make-up’이 아닌 ‘beauty make-up’으로 전락하는 단순화 경향이 강해졌다. 분장이 단순 기능작업으로 머물 경우 분장 작업의 열악한 환경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다.

그러나 의식 있는 분장사들에 의해 체계적인 분장작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

고, 예비 분장사들의 전문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분장사의 자질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극중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방법론적인 이론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이론, 즉 한국적인 성격분장 기술 개발을 위하여 인상학을 적용,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대중적 호감도와 인지도가 높은 TV 드라마 《야인시대》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形象) 연구를 통해서, 인상과 분장의 관계를 분석 연구하여, 기초개념을 고찰하고, 체계적인 이론정립을 통한 현실에 적용 가능성과 성격분장의 정형성 탈피를 도모하여 성격분장의 창조 기법을 위한 연구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별(類型別) 이미지(形象)¹⁾란 다큐멘터리 TV 드라마속 등장인물의 출연자가 성격분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의 얼굴상(顔面象)을 말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분장 디자인의 실무 발전과 이를 위한 기초 이론을 성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분장 방법에 대한 고찰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통한 분장사들의 자질 향상으로 발전되어 분장이 창조의 한 형태로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분장의 재반 환경을 개선시켜 분장의 연구와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서 연구 개발을 통한 작품과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한편, 한국적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1) 형상(形象;image): 감각적·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象). 반드시五官(五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더라도 뇌리에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이면 된다. 개념적 사고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감각적·직관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두산 대백과 사전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논문은 성격분장 중 안면분장에 국한하여 TV 드라마 《야인시대》 등장인물들의 분장을 정형화 창조 유형·초상(模寫) 창조 유형·성격(character) 창조 유형·이미지 창조 유형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그 유형별 분장 방법 특징과 이미지(形象) 고찰을 통해 인상학과 연관 관계를 분석하고 그 연구 결과에 의한 발전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모든 공연물의 배역 성격을 보완, 강화하는 성격분장중 장르를 TV드라마로 제한했다.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적 요소가 있는 타 영상매체의 분장과 무대공연인 연극·뮤지컬·오페라의 분장은 제외했다. 그 이유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모든 매체 분장을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가장 큰 TV 드라마에 표현되는 얼굴 분장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이 본 논제의 심도를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다른 장르의 특성과 성격분장의 차이 비교를 통해 영상 작품만의 성격 분장의 특징을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했다. 그리고 TV 드라마 작품 중 《야인시대》에 국한한 이유는 이 연구에 가장 근간의 작품(2001년2월 촬영시작 ~ 2003년 9월 30일 종영예정)이며, 드라마를 즐기는 다양한 시청자 계층과 그들의 호감도를 반영하는 높은 시청률, 그리고 동일 드라마 속에 여러 장르적 요소의 변형이 적용되어 등장인물의 성격분장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그러한 요소들이 본 논문의 연구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중심 단어인 분장은 모든 공연물, 즉 무대·영화·TV 등에 출연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연기자들이 극본이 요구되는 인물 성격을 소구대상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공감대와 효율적인 극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분장중 안면(顔面)분장을 의미하며, 분장의 일반적인 고찰에서는 일반적인 분장의 의미를 지닌

다.

본 논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성격 분장의 이론적 고찰(考察)을 위하여 분장의 개념과 종류를 개괄하고 성격분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골상·색채·조명·의상 순으로 분석하여, 그 환경적 요인들이 종합된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특징과 TV 드라마 성격 분장 과정을 통하여 성격분장의 실태 및 제반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상학에 근거한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를 위하여, 인상학의 얼굴 총론을 개괄하고 작품 사례를 통하여 인상학에 근거한 안면분장을 연구하여, 그 과정에서 인상학의 적용방법을 TV 드라마 《야인시대》를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작 환경의 다양한 변수가 분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 마지막으로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 II 장. 분장과 인상학의 이해

제 1 절 분장의 이해

1. 분장의 개념

분장(扮裝;make-up)은 “배우나 무용가가 극중인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화장을 하고 의상·가발·가면·모자·신발등을 착용하는 일”이며, “대사나 연기활동을 하기 전에 관객의 시각을 통하여 그 역할의 시대·지역·연령·직업·지위·성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극적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make-up’은 분장이라는 뜻이 강한 단어이다. 그러나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상품을 파는 미용사원들에게 화장을 가르쳐 주며 ‘beauty make-up’이라고 해야 하는 화장을 ‘beauty’를 생략하고 ‘make-up’이라고 불러온 전례로 최근 분장과 화장이 혼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이 된다.

분장, 변장, 화장과는 각각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변장(變裝 ; disguise)은 “일정한 목적으로 복장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되며 그 의미 역시도 차별화 되는 데, 변장은 “자체집단의 독자성을 상징하는 본래의 목적을 파괴하고 의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의 복장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분장(扮裝)이라는 용어로 쓰이며, 연극·영화 배우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범죄수사의 수단으로서 수사관이 인상·착의·언어·동작 등을 변화시켜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경우와 범죄자가 잠적을 목적으로 여장·남장·개장(수염·점 만들기) 등을 하여 은신하는 경우가 있다.”²⁾ 고 정의되

며, 화장(化粧 ; beauty make-up)은 “화장품을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같은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작품을 위한 표현 수단으로 이용될 때 분장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분장(扮裝)은 한자로는 이음절이 각각 ‘나눌’ ‘분 (扮)’ + ‘갖출’ ‘장 (裝)’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서로 나누어진 것을 만든다. 또는 이루어진다.”, “나누어진 모든 것을 알맞게 챙겨 완전히 갖추도록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영어로는 ‘Make-up’ 이라고 표기하는 데 이 역시 ‘make:만들다’와 ‘up:위로’의 합성어로 “만들어 상승효과를 주게 한다.”³⁾ 로 풀이 될 수 있다.

‘Make-up’의 의미를 얼굴을 꾸미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분장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자와 영어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얼굴에만 국한된 작업을 지칭하는 의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대공연의 각종 방송제작물, 또는 이벤트의 외형물까지 외형뿐만이 아니라 살펴보면 생활 속의 배우와 작업 속에서의 배역 인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이원성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작업 즉, 얼굴 분장 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 장신구 등을 완전히 갖추어 작품 속의 배역 인물로 변모시켜 주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분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추세는 분장과 미용담당 그리고 코디네이터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의상·소품·조명·무대디자이너 등과 스타일이나 색조 분위기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의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분장은 작품 내에서 독자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2) 두산대백과

3)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서울 : 지인당, 2002, p.8.

4) 강대영, 상계서, p.8.

분장·의상·소품·장신구 등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연기자의 전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큰 의미의 분장이다. 배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범위에서 역할이 요구하는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각 부분을 무엇으로 어떻게 갖추어 표현하는가에 따라 인물에 대한 표현이 달라진다. 각 부분별로 분장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얼굴은 분장에 의해서 시대, 민족·환경·연령·성격·건강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피부색과 피부 상태의 유무에 따라 사는 곳이나 직업·건강 상태가 보여지며, 인종과 출생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눈과 눈썹의 모양에 따라 성격이나, 현재의 심리 상태등을 가늠할 수 있으며, 헤어스타일에 따라 직업, 생활수준과 교양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의상은 분장에 의해서 시대·민족·경제 직업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의상의 색이나 스타일에 따라 시대 및 생활장소를 알 수 있으며, 길이와 노출에 따라 계절이 드러나며, 옷감의 재질이나 디자인에 따라 경제와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소품의 변화를 통해 직업, 취미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갖추고 있는 소품에 따라 직업이나 취미 등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으며 주변의 사용하는 물건에 따라 시대와 장소, 재산상태,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소품은 메소드 연기(method acting)⁵⁾에 충실한 연기자들이 그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즐겨 사용했다.

장신구의 변화를 통하여 직업에 의한 계급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장신구는 때로는 의상의 범위나 소품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직업이나 현재의 외형적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⁶⁾

분장의 본질적인 목적은 배우를 배역인물로 표현하는데 가장 외형적인 의사

5) 스타니스라브스키의 사실주의 연기법을 연구하고 습득한 연기자들의 연기를 이르는 말. 이승구, 이용관 역음, 『영화용어 해설집』, 서울 : 영화진흥공사, 1990, p.127.

6) 강대영, 전계서, pp.8~9.

전달 수단으로써 배우의 모습을 정확하게 역인물화시켜 관객으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극 중인물 창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분장의 특색으로 인해 안면분장의 경우 일반 화장처럼 단순히 미화(美化)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곡과 시나리오가 규정하는 인물상(人物像)에 따라, 직업·지위·연령·기질 등에서 오는 외용적인 특색을 내면적 생활과의 관련에서 파악하여 이것을 자기의 안면적(顔面的) 특징으로 표현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안료를 사용하여 얼굴의 빛깔과 형태의 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만든 코, 만든 수염, 만든 눈썹, 가발, 팬 볼을 감추기 위해 어금니 언저리에 넣는 솜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변형시킨다. 또 치열을 바꾸거나, 얇은 고무판을 얼굴에 붙이기도 한다. 분장은 또 작품의 전체의 장르(genre)⁷⁾에 지배된다. 연출이 사실적이냐, 양식적이냐, 장치의 형태와 조명의 명암은 어떠한가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조명과의 관계는 특히 밀접하여 충분한 고려를 요한다.

2. 분장의 기원

“분장의 기원은 아주 오랜 옛적부터 원시적인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좀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들로 하여금 미의 위엄 앞에 굴복하기를 희망한다.”⁸⁾ 는 미적 기원설이 있다. “화장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미적 본능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서 오는 끊임 없는 자기표현의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분장의 역사는 인간이 미적인 본능을 느끼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⁹⁾ 생존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7) 작품의 양식(樣式). 스타일, 주제, 극적 구조, 분위기 등 유사한 표현상의 인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동일한 영역으로 분류한 것. 이승구 외, 전게서, p.354.

8) 박수명, 전 MBC 미술센터 이사, 『영상미술세계의 이해』중 p.82.

되면서 수많은 외부 적들로부터 자기보호의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얼굴이나 몸을 치장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고 집단 생활을 하며 남다른 상징적인 존재로 상대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는 역시 “자신을 꾸며 이성(異姓)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하는 종족 보존의 자연스러운 현상”¹⁰⁾의 생물학적 기원설과 함께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 분장은 미적인 성적능력본능의 만족 수단, 주술적·종교적 욕구의 충족 수단, 성별·사회적·소속 집단의 표시 수단, 신체의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한 실용적 수단”¹¹⁾으로 정리 될 수 있다.

화장을 한다는 것과 분장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만 화장의 발달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분장의 발달 과정도 엿 볼 수 있다. 화장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분장을 지칭하는 영어의 변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영어의 ‘painting’, ‘toilet’, ‘dressing’ 등인 데, ‘make-up’ 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랏슈(Richard Crashou)에 의한 것이나 이보다 앞서 16세기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희곡에 ‘페인팅(paint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켰으며 16~17세기를 통하여 연백(鉛白)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Paint)’라고 불렀고, 후에 백납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에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painting)’이라 하였다.

그런데 paint의 어원이 ‘속이다.’의 뜻에서 출발하여 ‘색칠하여 속이다.’에서 흔히들 ‘물감 도료’등을 표현하는 말로 페인트를 쓰게 되는 데, 16세기 경 전쟁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하는 병사들의 겁탈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자들이 그 당시 화장품을 이용하여 보기 싫은 얼굴로 만들어 다니

9) 강대영, 전제서, p.9.

10)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옮김, 『이기적 유전자』, 서울 : 을유문화사, 2002, p.256.

11)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서울 : 도서출판답게, 1998, p.15.

며, 적군의 병사들의 검탈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그 당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을 ‘페인트’라고 불렀고, 여러 과정을 통하여 지금의 ‘make-up’ 이라는 단어가 고착되게 되었는데, 인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나 남을 속여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는 것도 역시 분장이므로 그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현재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분장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화장이 아닌 make-up의 발달사는 조명 기술의 발달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분장의 본격적인 시작은 연극무대가 노천에서 실내로 옮겨지면서부터로 보고 있다. 극장 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 노천에서 이루어진 연극은 배우의 성격이 정교하게 조각된 가면을 통해 인물을 표현하였다. 이는 자연광선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하지만 옥내 극장은 자연광선이 차단되고 인공광이 사용되며 정교한 표현 효과는 나타나지기 힘들었고, 이로 인해 단순히 밝히는 목적이었던 조명이 집사광으로 바뀌어 인물에게 집사 할수 있게 되었다. 이 집사광은 인물을 평면화를 강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찾으려는 노력이 오늘날의 공연 분장 발달의 시작이 되었다.

조명에 의해 배우와 관객과의 거리가 넓어져서 시각의 감지(感知) 한계를 넘을 때 우리는 배우의 얼굴을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며, 또한 조명의 집사광에 의하여 평면화된 얼굴에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오늘날 무대분장의 새로운 기법의 시작이 되었다. 피부의 색조나 확실한 윤곽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연구되어, 연극에서 요구하는 인물의 캐릭터(Character)나 극적갈등(劇的葛藤)의 성격대비(性格對比)를 표현해 내려는 노력들로 인해 근대 분장술의 발전을 가져왔다.¹²⁾ 더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대극이 생기게 되었고, 재현의 과정에 있어 분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의 공연이 활발해짐에 따라 분장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었다.¹³⁾

12) 박수명, 전계서, p.83.

13) 강대영, 전계서, p.10.

영화의 발명과 텔레비전의 발명은 무대에서 영상표현으로 바뀌는 계기였다. 영화의 민감한 카메라 렌즈와 25배 이상 확대된 얼굴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했으며, 실제보다 축소된 텔레비전은 선명도의 강조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조화미를 나타내야만 하였다. 영화에서 주는 세밀함은 차츰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HDTV¹⁴⁾ 제작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 화면에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숨김없이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해상도가 높아진 화면의 특성 때문에 피부의 윤곽은 물론 피부의 땀구멍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 노출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분장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했고, 지금보다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분장이 이루어져야만 하게 되었다. 뛰어난 해상력에서 오는 디테일은 숨겨진 것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분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또한 분장 시간도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HDTV 로 제작이 시도되고 있는 현지점에서 분장 방법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분장의 종류

분장의 종류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르다. 기능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분장, 표현 방법에 따라 일반분장과 성격분장, 안료기법에 따라 평면분장과 입체분장, 연출 공간에 따라 무대분장과 영상분장, 성격에 따라 일반분장과 특수분장으로 나누어진다.

연극 등의 무대예술에서 극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대분장으로는 배

14) 고화질텔레비전(High Definition Television):고화질텔레비전과 기존 텔레비전의 최대 차이점은 화면의 선명도를 나타내주는 주사선의 차이이다. 기존 텔레비전이 주사선의 수가 525~625선이라면 고화질텔레비전은 2배 이상 많은 1,050~1,250선으로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사실감을 느낄 수 있다. 화면의 가로 세로의 비도 텔레비전이 4대 3인데 비해 5대 3.3으로 규격이 상당히 다르다. 두산대백과 사전

우와 관객간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관객이 배우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이도록 콧대를 세우거나 눈썹을 진하게 하는 등 과장되게 분장해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다.

무대분장은 극의 종류에 따라 다시 연극·오페라·뮤지컬·성극·마당놀이·무용·이벤트 등의 분장으로 나뉜다. 연극분장이나 오페라분장은 사실적 표현기법으로 처리되며, 고전 무용분장이나 발레분장은 사실적이면서도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화사하게 형상하고, 현대무용 분장은 다양한 조명과 의상의 변화에 맞춰 개성있는 분장 연출로 형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분장은 무대와 떨어져 있는 관객을 상대로 하는 분장이 아니라, 관객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영상 작품의 렌즈를 상대로 하는 분장이다. 그런데 영상은 필름 감응에 비상하고 색에 민감한 렌즈를 거쳐 화면에 투영되기 때문에 사전의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분장이 요구된다. 영상 분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기자의 모습의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장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영화에서의 대화면(大畫面), HDTV의 고화질 화면과 카메라의 고급화, 조명 기자재 및 발전된 촬영기술에 의하여 연기자 얼굴의 미세한 결점까지 명확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분장은 보다 정확하고 섬세해야 한다.

영상분장은 멋이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작품 속에 설정된 각 인물들의 직업·연령·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노인이나 실업자·전과자·흑인·백인 또는 상처·바보·유령·도사 등의 배역 인물들 간에 이질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려 독자적인 개성을 더욱 분명히 살려낼 수 있는 거의 새로운 인물로 변모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촬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최적의 분장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상분장은 영상매체 및 성격에 따라 다시 ‘TV 방송 분장’과 ‘영화 분장’, ‘광고 분장’ 등으로 나뉜다. TV 방송 분장은 TV 화면이 영화의 화면 확대 현상에

비해 축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제된 색상의 조화, 섬세하고 간결한 테크닉을 요구한다. 반면에 영화 분장은 대상이 대형 스크린에 의해 실제보다 확대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한 분장 방법을 요구한다.

광고분장은 제품·기업홍보·공공기관의 캠페인 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전문 영상 광고 출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장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기획 의도에 맞게 출시한 제품 이미지 또는 제품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패션쇼·웨딩·사진 분장은 광고 분장과는 별 차이가 없으나, 아름답고 화사한 인물 부각이 주목적이다. 이 밖에도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이 대중 앞에 나서기 전에 기본으로 하는 분장이 있고, 아나운서·쇼 MC·대담자 등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인상을 명확히 살려주기 위한 분장이 있다.

또한 분장은 그 성격에 맞는 표현방법에 따라 ‘성격분장’, ‘일반분장’, ‘특수분장’으로 나뉘며, 성격분장은 연기자가 맡은 배역의 성격을 관객 즉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분장으로 드라마나 코미디의 연기자들에게 행하여진다. 이때 배역의 성격은 극본에서 얻어 지는데, 극본에 표현된 대화나 설명문에 내재된 인물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환경·연령·외양특징·작품 속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연기자의 외양에 따라 용모의 변화 폭을 결정하게 된다. 배역의 성격을 정하는 것은 연기에 필요한 만큼 분장에도 꼭 필요하다.

일반분장은 출연자의 성격이나 개성보다는 용모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피부색을 최상으로 나타내고 조명의 강렬한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분장으로 아나운스·MC·뉴스 캐스터·TV리포터·TV대담 프로그램 출연자 등에게 적용된다. 일반 분장은 다시 ‘기본 분장’, ‘뷰티분장’, ‘스트레이트 분장’, ‘기본 패션 분장’, ‘신부 화장’, 사진·포스터·광고 등을 위한 ‘기본 광고 분장’ 등으로 나뉜다.

특수분장은 이상화된 표현에 의해서 그 성격을 묘사하는 것인데, 때로는 분장

이 완전히 비사실적이어야만 할 경우 극본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성격 자체가 비사실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사실적인 정확성보다는 과장·단순화·상징화·의미화된 선과 색채·형태·생물 등과 연기에 사용되는 가면도 이에 해당한다.

특수분장¹⁵⁾은 다시 ‘시대 분장’, ‘성격 분장’, 데드 마스크(death mask)¹⁶⁾를 이용한 ‘접착 분장’, ‘추상 분장’, ‘연령 분장’,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추상적인 인물의 ‘실제화 분장’, ‘연령분장’, 원격 조정에 의한 근육의 움직임과 컴퓨터를 이용한 로봇(robot)의 ‘특수 효과 분장’으로 이루어진다.

분장은 표현 부위에 따라 ‘정신분장’·‘대사분장’·‘신체분장’으로 나뉘어진다. 정신분장은 배우가 연기하는데 있어서의 진실성·영원성·순수성·예술성·신비성 등을 추구하는 분장이고, 대사 분장은 대사의 고저·장단·어투의 시대성 등을 표현하는 분장이다. 그리고 신체분장은 얼굴 표정과 의상 일체까지를 포함하는 분장형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 분장이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분장은 ‘신체 분장’, 그 중에서도 의상은 별개의 분야로 독립되고, 신체 조건만으로 맡은 바 역할의 인물로 분장하기 위한 ‘안면 분장’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안면 분장은 헤어스타일을 포함한다.

분장은 넓은 뜻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즉 모자의 종류, 가발을 포함한 헤어스타일, 안면 분장, 의상, 장신구, 신발류, 지참 소도구 등을 포함하지만, 현재의 분장은 좁은 뜻의 헤어스타일과 안면 분장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 분장은 얼굴과 머리가 핵심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의상·장신구·의상 소품·신발과 무대의 배경 세트·가구·집기·의상·장신구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15) 라텍스, 젤라틴, 더마왁스, 노즈퍼티등의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안면이나 손, 목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조각적인 분장법.

16) ‘죽은 직후에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직접 본을 떠 만든 안면상(顔面像)’을 뜻하나 여기서는 석고본을 떠 만든 안면상을 뜻한다.

다. 특히 헤어스타일과 가발은 배우의 성격을 구분 짓는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서 연기자의 얼굴을 배역에 맞게 변모시키기 위해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분장작업들은 연구 방법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표현되어 보여지는 것은 근본 목적으로 한다. 그 보여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주변 관련 학문이나 기술이 적절히 연계되어야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관련학문이나 기술을 분장의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며, 기본적 이론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된다.

제 2 절 TV 성격분장의 환경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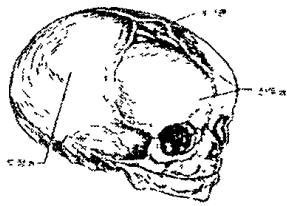
분장의 성격에 따른 종류중 하나인 ‘성격 분장’을 효율적으로 표현해 줄 주변 관련 요인으로는 골상·색채·조명·의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환경적 영역이 어떤 측면에서 성격분장과 관련이 이루어지는 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골상(骨相)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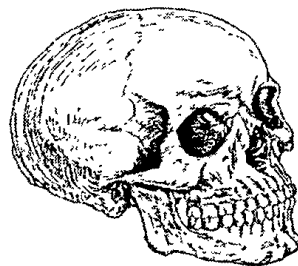
얼굴의 뼈와 안면 근육에 대한 지식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본이 되고, 등장인물의 노역 변화에 대한 절대적인 기본이 된다. 두개골과 근육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은 분장의 필수조건이다. 흔히 뇌라고 부르는 두개골은 전두부,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를 총칭하며, 인종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안면골¹⁸⁾ 즉, 얼굴이라고 하는 부

17) 얼굴이나 두개골 등 골격에 나타난 길흉화복(吉凶禍福)의 상(相). 사람의 성격을 비롯한 심적 특성 및 운명을 추정하며, 대뇌를 둘러싼 두 골의 형상, 두산대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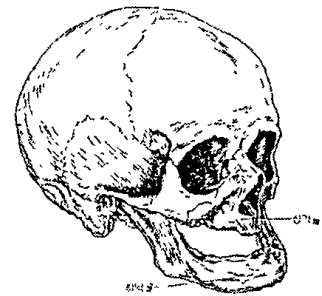
분인 턱·눈·입·코·안면부위의 근육과 코뼈·턱뼈·광대뼈등의 골격 위치 및 상태는 연령에 따라 크게 변화되므로 사전에 숙지해야 효과적인 분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와 피부 탄력은 주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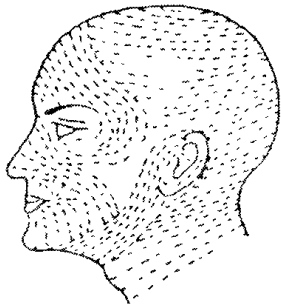
<그림 1> 출생시
두개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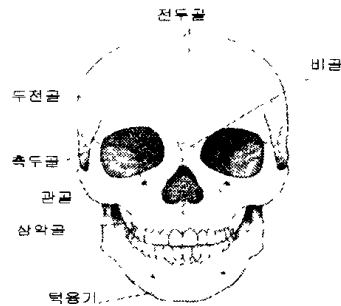
<그림 2> 성인 두개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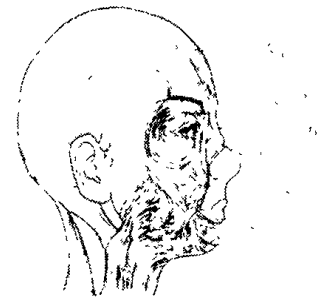
<그림 3> 노인 두개골



<그림 4> 피부활선



<그림 5> 전면구조



<그림 6> 안면근육

18) 顔面骨(facial bone): 두개골 중 안면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15개의 뼈, 두산대백과

2. 색채

분장이 조명의 발달과 함께 한 것처럼, 색¹⁹⁾은 곧 분장의 필수 학문이다. 빛과 색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색을 혼합하면 다른 색이 되는데, 혼합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적색광과 녹색광을 흰 스크린에 투영하여 혼합하면 빨강이나 녹색보다 밝은 노랑이 된다. 이와 같이 빛을 더해서 혼합하는 방법을 가산혼합(加算混合) 또는 가법혼색(加法混色)이라고 한다. 빨강·초록·남색의 색광을 여러 가지 세기로 혼합하면 거의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 3색을 가산혼합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컬러 텔레비전의 수상기, 무대의 투광조명(投光照明), 분수의 채색조명 등에 이 원리가 사용된다. 화장품 제조회사들의 색상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색상 표현의 통일이 어려운 실정에서 색채학의 이해로 분장의 기본색상인 빨간색·노란색·검정색·흰색, 이들 색을 서로 혼합해서 필요한 분장의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색의 이론과 감정을 이해하면 효과적인 분장을 할 수 있다. 색채조절²⁰⁾에 있어 색의 심리적 효과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얼굴의 눈과 볼의 차가운 색, 입술의 따뜻한 색으로 색상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색이라도 색상·채도·명도에 따라 거리가 달라져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진색은 팽창해 보이고, 후퇴색은 수축해 보인다. 이 같은 색채 원리를 이용해 코나 턱을 돌출되어 보이게 하고 눈을 들어가 보이게 한다.

19) 색(色; color): 빛의 스펙트럼(분광)의 조성차(組成差)에 의해서 성질의 차가 인정되는 시감각(視感覺)의 특성. 명도·색상·채도는 색의 기본적인 성질이며, 색의 3속성이라고 한다. 두산대백과사전

20) 색채조절(色彩調節; color conditioning): 어떤 목적에 의한 색의 기능적 사용과 환경에 따른 계획적인 채색. 두산대백과사전

<표 1> 색과 감정과의 관계²¹⁾

속 성	종 별	감정의 성질	색의 예	감정의 성질
색상	난색	따뜻함 적극적 활동적	적 황적 황	걱정, 노함, 환희, 활력적, 흥분 기쁨, 활발함, 원기 쾌활, 명랑, 유쾌, 활동적, 원기
	중간색	중용, 평정 평범	녹 자	평온, 평안, 평정 엄숙, 신비, 불안, 온순, 정숙
	한색	싸늘함 소극적 침정적	청록 청 청자	안식, 싸늘함, 우울 침착, 쓸쓸함, 비애, 심원 승고, 고독
명도	고 중 저	양기, 명랑 침착 음기, 중후	백 회 흑	순수, 시원함 침착, 억울 음울, 불안, 위엄
채도	고 중 저	신선, 발랄 평화, 온화 고상함, 침착	주 핑크 다색	열렬, 격심, 정열 사랑스러움, 상냥함 침착

3. 조명

빛을 사람의 생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활용하는 것은 조명이며, 빛은 인간의 오관중의 하나인 시각에 의해 감지된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카메라도 피사체를 보고 상(image)을 정상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빛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명은 분장과 상당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다. 잘 짜여진 조명 설계는 분장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지만 그 반대의 것은 분장과 분장색을 망치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분장사는 분장을 하기 전에 조명의 위치, 조명의 강도와 집사 방향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1) SBS 방송아카데미, 『방송과 프로그램 제작 제2권』, 서울 : SBS 방송아카데미, 1996, p.487.

조명 각도에 따라 얼굴 음영에 많은 차이가 생기고, 정면 조명은 얼굴을 평면화 시키며, 좌측에서 집사된 조명은 코를 중심으로 좌측 안면만을 평면화 시키고, 그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머리 정수리 위에서 집사되는 Top Light는 얼굴의 돌출된 부분을 위해서 비추어져 눈썹 부분, 눈두덩, 코, 광대뼈, 입술, 턱 등을 돌출되게 비추어지며, 반대로 발 밑에 반사되는 Foot Light는 위의 경우의 반대 현상이 이루어진다. 괴기스러운 장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명기법이다.

태양광선에서는 분장이 과장될 수 있어 실제 다른 것보다 2배 정도 두껍게 보여진다. 다음은 인공광과 자연광에 따른 빛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다르게 재현되어지는 색채현상을 표로 만들었다.²²⁾

<표 2> 조명에 따라 왜곡되어지는 색채의 특성

구 분	천 연 광	백 열 등	형 광 등
특성	본래의 색으로 나타남	본래색 + 노르스름한 빛	본래색 + 희고 약간 푸른 빛
밝은 빨강	빨강	중간 빨강	강한 빨강
보라 핑크	보라 핑크	부드러운 핑크	강한 핑크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짙은 오렌지
붉은 보라	붉은 보라	보라	붉은 보라
베이지	베이지	열은 베이지	노란 색의 베이지
갈색	갈색	황금빛 갈색	노란빛의 갈색
피할 색	없음	열고 흐린 색	푸른 기가 도는 붉은 색

그리고 다음은 조명색으로 인해 단점으로 작용하는 면을 대체 하는 분장 색채를 이용한 효과적으로 보완 방법의 일례이다.

① 붉은 빛 : 전체가 밋밋해 보이므로 노스 새도우 강조

얇은 빨강 ▶ 핑크, 진한 빨강 ▶ 탁한 핑크

22) 임재룡, 『MBC 방송 아카데미 교재』, MBC, 1996, P.13.

② 녹색 빛 : 피부 표현은 충분하게(두껍게) 바르고 약간 노란 듯한 느낌이 나게 한다. 색이 옅으면 새파랗게, 붉으면 검게 보인다.

③ 파란 빛 : 피부가 더러운 느낌이 들기 쉽다.

밝은 노란기를 가진 핑크 계열의 피부색을 표현한다.

선명한 핑크를 가볍게 사용한다.

청색은 잘 나타나지 않고, 빨간 색은 자색을 띄게 된다.

④ 황색 빛 : 피부색 표현은 어느 정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블루 계통은 검어 보인다.

⑤ 각테일(혼합빛) : 색광에 있어 가장 변화하지 않는 것이 갈색이므로 갈색을 사용한다.²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색은 촬영 장비와 표현되어지는 장비, 즉 TV 수상기등을 거치면서 색과 이미지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최상의 분장 효과를 위해서는 빛에 의해 표현되는 매체 특징을 파악해야 하며 촬영·조명 감독과 협력해야 한다.

4. 의상

의상과 분장은 서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장으로 표현이 미흡한 곳은 의상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반대로 분장이 보완해 주는 경우도 있다. 연기자의 의상은 극중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며, 인물의 설정 즉 성격 창조 및 신분, 연령의 표현 도구로 활용된다. TV 의상은 상징성 보다는 사실의 재현이 중요하며, 의상 배색효과 및 색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주색·주변색·외주색이 있다. 주색은 얼굴색이고 주변색은 의상색이며 외주색은

23) 태평양, 『태평양 뷰티 아카데미 교재』, 태평양, 1995.

배경(set)색이다. 의상은 특히 배경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등장인물과 분장이 가장 조화된 의상이라 할지라도 등장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다른 등장인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의상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의상의 패턴²⁴⁾ 역시도 TV가 가지고 있는 주사선의 특징적 요소²⁵⁾로 인해 순백색과, 순흑색을 피해서 피부색의 자연스러운 재현을 유도하기도 하고, 두 사람 이상 등장할 때, 의상의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심하지 않게 하여 의상색이 반사되거나 색상의 왜곡을 방지해야한다. 그리고 의상에 관련된 장신구들은 지나친 광택이나 복잡한 모양을 피해야 한다.

드라마에서 의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① 발생하는 시대를 확인시킨다.

등장인물의 의상으로 드라마의 시대가 언제 인가를 추측 가능하게 해준다.

② 장소를 확인시킨다.

각 지역이나 사회적으로 독특한 의상으로 농촌, 도시, 지역, 나라를 암시한다.

③ 직업과 계급, 신분을 구별한다.

의상의 소재, 질감등으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표현된다.

④ 생활 양식을 차별화 시킨다.

같은 시대에 적용이 되며 등장인물의 의상이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 구분된다.

⑤ 배역의 나이를 표현한다.

⑥ 관계를 구분짓는다.

집단의 대조적 표현이나 동정등의 심리적 표현을 대신한다.

24) 본(pattern): 모티브가 모여서 이루는 무늬의 전반적인 형태. SBS, 전게서, p.606.

25) Moire Effect: TV 주사선 작동에 방해를 주어 선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 상게서, p.606.

제 3 절 인상학에 근거한 분장론적 이미지 연구

1. 인상학 (physiognomy)²⁶⁾의 개념과 범주

인상학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에서, 유럽에서는 그리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300년경에 인상학이 생겨났으며, 중국의 옛이야기에 “상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공자의 일문(一門)에서도 “인상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었다.”하고, 수학자 피타고라스 (Pythagoras),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도 인상연구가였다고 한다.

또한, 인도에서는 태고적부터 인상학이 존재하였다고 전해오는데,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그 상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 “이 왕자님은 뛰어난 인물이 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2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차 위대한 성제가 되시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고 한다.²⁷⁾

중국의 관상학이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신라의 선덕여왕때 당나라로 유학간 승려들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관상학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거쳐 발달하였으며, 특히 불교계의 상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고려시대에 유명한 관상가로 도선국사와 혜징, 무학대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개 승려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승려들뿐만 아니라 서경덕과 이율곡 같은 학자들도 관상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명종때의 남사고, 이천년, 이토정, 정북창 등이 상학을 연구하고 활용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렇듯 인상학의 뿌리는 중국이며 3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평화로운 시대보다는 전란의 시대, 화해의 시대보다는 갈등의 시대가 많았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을 알기 위

26) 인상학, 관상학, 골상학(민중서림 편집국, 2001 : 1852) : 성격에 대한 신체적인

외모와 개성의 특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두산대백과

27) 김문기, 『얼굴로 보는 평생 운명학』, 서울 : 가교출판사, 1994, pp. 27~30.

해서 관상학을 발전시켜 왔으며, 또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관상학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 시켜 지금의 인상학이 만들어 졌다.

외모 특히 얼굴의 용모로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을 판단하려는 것으로 인상학은 종교에서도 쓰이며, 자수 점성술과도 함께 쓰인다. Barthelemy Cocles의 인상학 (Physiognomonica)에서 Cocles는 다른 인상학자처럼, 사람을 얼굴 생김새로 판단하는 일을 과학으로서 인정하려 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인상학의 신봉자는 이것을 사람의 범죄 성향을 판단하는데 사용했다. 인종 편견을 지닌 차별주의자의 상당수는, 지금도 성격이나 개성을 판단하는데 인상학을 사용하고 있다.

상(相)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우선 눈으로 보이는 상으로 그 사람의 눈빛, 언상(言相), 웃음소리, 체상(體相)을 비롯한 육체언어 등을 미루어 판단하되 생각, 태도, 실천의지, 주위여건 등을 종합해 온몸과 몸짓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이 인상학이다. 동양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역술은 수상학(手相學), 골상학(骨相學), 족상학(足相學), 모상학(貌相學), 인상학(人相學)등의 시각적 판단분야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활용하여 인간의 운세를 판단하는 사주학(四柱學)이라는 비시각적인 분야로 나뉜다. 태어난 생시를 이용해 운세를 판단하는 것이 사주에서의 핵심적 부분이고, 두뇌활동과 건강상태등은 수상에서 판단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과 정서의 판단은 인상학에서 다룬다. 인상학의 개념은 ‘시각적인 관찰의 결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흔적을 살필 수 있고, 운명을 판단하고 그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피흉추길(避凶趨吉)의 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이라 하겠다.

예로부터 인상학은 지도자의 학문으로, 제왕이나 제상들의 필수적인 학문 분야로 널리 애용되어 왔으며,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경영자가 인상학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다. 실례로 한 일본회사(日製産業; 닛세이

상교오)라는 회사는 67년부터 사원 채용과 배치에 인상학을 도입, 사원의 얼굴모양, 눈, 표정, 안색 등 여러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회사가 바라는 타입의 사원상(社員像)을 추출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원을 뽑아 연간 3조8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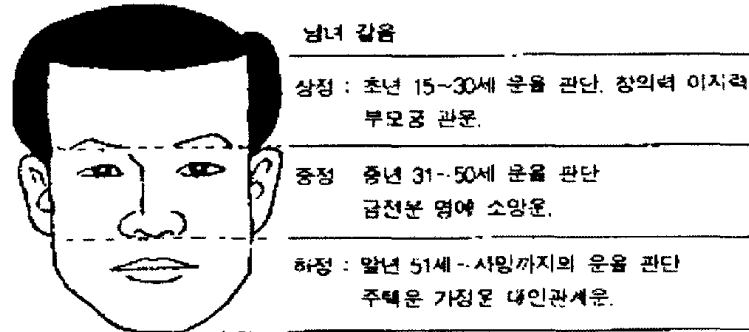
그 밖에 범죄수사에 용의자 몽타주를 작성할 때, 한방의학(韓方醫學)에서 불문진법(不聞診法)의 하나로 관형찰색(觀形察色)²⁹⁾을 응용하고 있으며 현대의학(現代醫學)에서도 인상학을 활용하여 병 진단에 참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인상학은 현실에 근거를 두고 통계학적 방법에 따르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지는 다른 점술(占術)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례를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관상학’이라고 불리우는 인상학은 주로 사람의 얼굴만을 살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상과 골격, 머리, 팔, 다리, 가슴, 배, 허리, 모발, 국부까지 몸 전체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얼굴의 상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인상의 기본원리는 음양오행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얼굴을 나누어 보는 데 그 방법으로는 좌우상칭구분법(左右相稱區分法), 삼정구분법(三停區分法), 궁구분법(宮區分法), 오관구분법(五官區分法), 세목구분법(區分法), 오행구분법(五行區分法) 등 다양하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관찰법은 다음과 같다.

28) 윤명중, 『얼굴의 미학』, 동학사, 1999, p.10.

29) 한의학상 진찰 방법. 한의학에서는 안면에 여러 부위를 가상하여 그 형태와 색조가 전신의 각 장기(臟器)의 건부(健否)를 알린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액부(額部:이마)는 심화(心火)에 속하므로 액부가 붉으면 울화병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좌협(左頰:왼뺨)은 간(肝)에, 코끝[鼻尖]은 비장(脾臟)에, 우협(右頰)은 폐(肺)에, 턱은 신장(腎臟)에 속하며, 안면부위의 빛깔 변화 여부로 각 장기의 병증을 파악한다.

1) 기본인상(基本人相) - 삼정(三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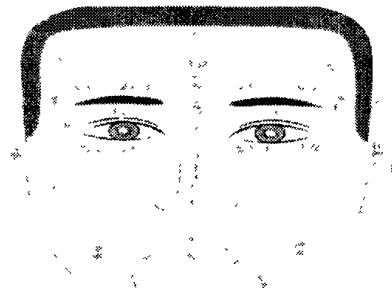


<그림 7> 삼정(三停)

- ① 머리 · 이마 · 눈 · 코 · 입 · 이 · 귀 등 중요한 부위를 관찰.
- ② 얼굴을 3등분하여 상정(上停) · 중정(中停) · 하정(下停)으로 나누어 관찰.

2) 오악(五岳)

오악(五岳)이라 하는 것은 얼굴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코를 중심으로 하여 이마 입의 아래와 턱 부분 그리고 양 뺨으로 얼굴을 나누게 되며 이것을 종합하여 관상을 총평하게 된다.



<그림 8> 오악³⁰⁾

30) <http://www.kimkwangil.com/>

- ① 중악(中岳 - 코) : 심리상태 및 사회적인 조건이나 출세, 입신양명 등을 나타내는 중심의 기운.
- ② 남악(男岳 - 이마) : 인생전반에 걸친 굴곡이나 역경등.
- ③,④ 동악(洞岳- 광대뼈)과 서악(西岳- 뺨) : 주로 사람의 성격을 나타냄.
- ⑤ 북악(北岳 - 턱뼈) :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타고난 부분들.

오악을 중심으로 얼굴 부위를 다시 열두개로 나뉘 그 각각의 운(運)을 보는 십이궁(十二宮)³¹⁾과 그 외에도 복록궁(福祿宮), 명궁(命宮), 천이궁(遷移宮), 복덕궁(福德宮), 처첩궁(妻妾宮), 전택궁(田宅宮), 남녀궁(男女宮), 재백궁(財帛宮), 상모(相貌)등으로 관찰하여 얼굴의 각 부분별 종합적인 관찰을 통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는 것이 인상학이다.³²⁾

2. 얼굴의 각 부분별 인상학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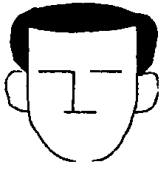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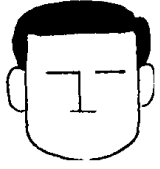
1) 얼굴형

모든 사람들의 얼굴형은 그 형체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상이 주는 느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의 얼굴은 한가지 형태보다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고 구분 짓기 위해 남자의 얼굴형과 여자의 얼굴형을 특징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유형들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31) 십이궁에는 명궁(命宮), 부모궁(父母宮), 형제궁(兄弟宮), 부부궁(夫婦宮), 자식궁(子息宮), 재백궁(財帛宮), 관록궁(官祿宮), 전택궁(田宅宮), 천이궁(遷移宮), 질병궁(疾厄宮), 노복궁(奴僕宮), 복덕궁(福德宮)

32) <http://www.kimkwangil.com/>

<표 3> 남자의 얼굴형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분류	얼굴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갑자형 (甲字形)	 <그림 3-1>	이마와 광대뼈가 넓고 얼굴 전체에서 상층 부위가 발달되었으나 턱이 쪽 빠진 형으로 매사에 신경이 예민하고 물질적 본능보다는 정신적 이상을 추구하며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 관계(官界)에 진출함이 좋고 교육, 비평, 철학, 연구, 예술 방면에 특성이 발휘될 수 있으나 고독한 이미지.
신자형 (申字形)	 <그림 3-2>	이마가 좁고 턱이 뾰족한 반면에 광대뼈가 발달하여 마름모꼴인 형으로 부모 형제 덕이 불충분하여 자수성가할 타입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굳센 의지와 부지런함으로 계획된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감이 강한 형 금속, 전자, 엔지니어, 섬유, 화학 계통, 고집이 완고한 이미지.
원자형 (圓字形)	 <그림 3-3>	얼굴 전체가 둥글며 눈, 귀, 입까지도 둥근 형으로 살집이 좋고 탄력이 있으며 불그스레한 혈색의 소유자. 행정 관청, 회사, 은행, 증권 업무 계통에 자질을 발휘할 타입. 유혹에 약한 편이며, 말년에 혈압 계통의 질환 조심. 성품이 원만, 명랑, 낙천적, 정력적이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일에 추진력이 강한 이미지.
전자형 (田字形)	 <그림 3-4>	얼굴의 상하좌우의 길이가 비슷하고 이마와 턱이 네모져서 사각을 이룬 형으로 뼈가 강하고 근육이 발달되어 활동적 업무에 적합하며 부귀를 함께 누릴 형으로 관직, 군경직, 스포츠 계통 등에 두각을 나타냄. 조혼은 나쁠 상, 성질이 급하며 용맹스런 투쟁심과 함께 부지런하고 매사에 정열적인 이미지.
유자형 (由字形)	 <그림 3-5>	이마가 좁고 빈약하며 광대뼈 밑으로부터 턱까지의 부위가 넓게 잘 발달되어 마치 턱이 얼굴 전체를 잘 받치고 있는 것 같은 형으로 초년 운세가 불길하고 부모덕이 허약하며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자립, 성공할 타입이다. 상업 방면에 진출하면 줄부가 될수 있는 형. 녀살이 좋고 우유부단한 면도 있으나 대체로 유한 성품의 이미지.

<표 3> 계속

분류	얼굴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목자형 (目字形)	 <그림 3-6>	얼굴이 직사각형을 세워 놓은 듯 좁은 형으로 교육계, 의사, 컴퓨터산업, 정밀기계, 전자 분야에 종사하면 성공하며, 돈보다는 명예를 따르는 장점이 있으나 신경이 과민하여 편협된 면이 있고 도량이 적은 단점, 약간은 허약 체질이나 수명은 장수할 상. 매사가 빈틈없고 세밀하며 감성이 강한 이미지.
풍자형 (風字形)	 <그림 3-7>	턱 부위가 특히 발달되어 있고, 좌우 광대뼈 위가 들어간 형으로 명량하고 의리가 있으며 사교, 수완이 탁월. 외교관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 적성에 맞겠으나 인내성 부족으로 인해 직장, 직업, 거주 등에 변화가 많고 유흥, 오락과 불규칙적인 생활패턴의 소유자의 이미지.
왕자형 (王字形)	 <그림 3-8>	이마뼈 광대뼈, 턱뼈가 푹 볼거져 솟아올라 얼굴 모양이 울퉁불퉁한 모양이고 살집이 없는 형으로 자수성가할 상. 건축업, 용역사업, 운수업, 일반 상업 분야에 적성에 맞고, 특히 눈과 볼 좌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얼굴로 성격이 단순 직선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소심한 성격의 이미지.
역삼각형	 <그림 3-9>	이마부위만 넓고 크게 발달되었으며 광대뼈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져 턱이 뾰족하여 마치 삼각형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한 형으로 두뇌가 명석, 총명하고 관찰력이 풍부하며, 문화, 연구직, 창작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발휘. 물욕보다는 명예욕이 무척 강하고 매사 주도치밀한 장점이 있는 반면 급하고 까다로운 성질로 자존심 강한 이미지.
삼각형	 <그림 3-10>	이마 부위가 매우 좁고 턱 부위가 매우 발달한, 마치 삼각형을 세워 놓은 것 같은 형으로 성질이 단순 명쾌하나 창의력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장 등 단체생활에 적합치 않고 자영 등 개인 사업이 적합. 금전욕이 강해 낭비심이 없고 지구력이 강한 이미지.

<표 4> 여자의 얼굴형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분류	얼굴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역삼각형	 <그림 4-1>	상중하 이마 부위가 넓고 얼굴 아래로 갈수록 좁아져 턱 부위가 좁은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 섬세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며 문학, 예술, 교육, 의상, 의약(醫藥) 계통에 실력을 발휘 자존심과 독립심이 강해 모든 것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에 의하여 사리 판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구력이 다소 약하고 신경이 예민한 이미지.
둥근형	 <그림 4-2>	얼굴 모양이 원(圓)을 그린 듯 동그란 형으로 신체에 살이 통한 형으로 낙천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주위 사람들과 분위기를 잘 맞추어 외교수완에 능하고 예능, 귀금속 공예, 관광업, 호텔업 계통에 종사하면 특출한 재질을 발휘. 이성보다는 순간적 본능이 지배하는 단순한 이미지.
네모형	 <그림 4-3>	이마와 턱 부위가 각(角)이 져 있고 얼굴 상하좌우의 폭이 비슷한 사각형 모양의 형으로 광대뼈가 나온 것이 특징이며 사회사업, 무역업, 상공업 분야 등의 강한 활동성 직업이 적성에 맞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강한 집념과 활동력으로 남자 못지 않은 대범한 면이 많은 반면에 고집이 너무 강하고 기질이 억센 이미지.
계란형	 <그림 4-4>	상중하 이마가 넓고 머리가 둥글며 아래턱 부위가 타원형의 곡선을 그린 듯한 형으로 이목구비의 조화가 반듯한 게 특징이며 냉정하고 이지적이며, 통찰력과 기억력이 매우 좋고, 모델업, 탤런트 등의 예술성 직업과 기자, 컴퓨터 계통, 비서직에 능력을 발휘. 주관이 확실한 반면에 이기적 경향이 있고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가 많으며 고독을 즐기는 이미지.
직사각형	 <그림 4-5>	얼굴의 폭이 좁고 세로로 길며 직사각형을 세워 놓은 듯한 모양으로 몸이 호리호리하고 코가 높은 것이 특징. 환상과 공상이 많으며 우울한 성품이 잠재하며 애정운은 중매가 길하고 늦게 결혼함이 좋다. 감정이 예민하고 재기가 풍부하여 평론가, 방송 리포터, 비평가, 의류, 패션계통의 적성. 총명한 두뇌의 소유자로 사리분별이 밝고 성품이 순수한 이미지.
삼각형	 <그림 4-6>	이마가 좁고 뺨족하여 아래로 내려오면서 턱 부위가 매우 발달해 마치 세모 모양을 한 얼굴형으로 신체가 건강하여 금융, 경리업, 관광안내업, 스포츠 계통 등에 적성이 맞으며 금전운이 좋아 상당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음. 성품이 대범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인정이 많으며 겉은 매우 강직하나 내면엔 부드러움이 잠재한 외강내유형의 이미지.

<표 4> 계속

분류	얼굴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사 다 리 꼴 형	 <그림 4-7>	이마 부위가 좁고 좌우 관골(광대뼈)이 넓게 발달되어 있고, 악골과 턱 전체의 부위가 각을 이뤄 마치 사다리꼴 모양 보험 업무, 간호사, 요식업, 사회봉사직에 적성. 대인관계에서 급할 줄 모르며, 센스가 부족한 점이 단점. 매사에 활동적이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정신이 있고 의지와 인내가 강한 이미지.
마 름 모 형	 <그림 4-8>	이마와 턱이 좁고 뾰족한 반면에 얼굴 전체 중 광대뼈가 차지하는 부위가 제일 발달되어 보여 마치 마름모꼴인 얼굴 형으로 부모덕과 인덕이 약하며, 한 가지 일에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완수. 애정운은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리직, 의류, 서비스, 스포츠 계통에 적합. 굳센 의지와 근면성이 있는 반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뒤끝이 차가운 냉정한 이미지.

2) 눈썹

눈썹은 인체학상으로 두 눈을 보호하는 것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의표(儀表)이다. 인상학에서는 그 사람의 지능, 의지, 능력을 나타내며 털은 혈액과 관계가 깊어 형제 관계, 즉 형제궁을 판단하기도 한다. 눈썹은 흔히 그 사람의 총명과 어리석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눈의 모양을 돋보이게 하는 채화(彩華)이다. 활이나 반달처럼 휘고 털이 유연해 모질이 고운데다 흑감색의 윤기가 있으며 <그림 9>에서 보듯 눈보다 눈썹이 길어야 관상학적으로 길한 눈썹이며 부귀가 따른다. 이와 함께 형제 관계도 양호하며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인데다 애정운도 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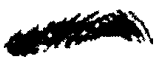
<그림 9> 눈썹의 길이

그러나 여성의 경우, 매우 극단적으로 긴 눈썹의 소유자는 친정 일로 인해 남편과 불화하기 쉽다. 눈썹이 눈보다 짧으면 빈궁하기 쉽고 부모 형제덕이 적으며 대인관계가 서투르다.

또 짙은 눈썹의 소유자는 보스 기질이 강하고 매사에 대범하면서도 한편으로 섬세한 면이 있다. 반대로 옅은 눈썹의 소유자는 의지가 약하고 치밀한 계획성이 부족하다. 특히 부모 형제덕이 부족하나 설득력이 강해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재치가 풍부하다.

눈썹의 일반적인 형에 의한 인상학적 이미지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5> 눈썹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분류	눈썹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초생달 눈썹	 <그림 5-1>	초생달과 같이 등근 모양의 눈썹으로 가운데 부분이 두둑하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눈썹형으로 집안이 윤택하며 애정운도 길함. 마음씨가 곱고 모든 면에 지혜가 뛰어나고, 청렴도(淸廉度)가 높으며 뜻이 고상하고 감성이 풍부.
일자 눈썹	 <그림 5-2>	머리부터 꼬리까지 수평으로 일직선으로 생긴 모양의 눈썹으로 털빛이 맑고 눈썹 전체가 굵은 형으로 관록과 재물 운이 좋고 부부의 화합으로 가정이 태평하고 안락하나, 형제 궁은 고독한 면이 있음. 고집이 강한 외골 성격이나 마음이 단정.
엇킨 눈썹	 <그림 5-3>	눈썹털이 단정치 못하고 이리저리 헝클어져 있으며 눈과 눈썹머리가 서로 맞닿은 것 같은 눈썹 형으로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약하고 직업이동이 많으며, 뜻고 소망에 좌절됨이 많음.
용 눈썹	 <그림 5-4>	술이 적어 눈썹의 살이 보일 듯 약간 드물게 눈썹털이 있으나 모양이 수려하고 당당해 위엄이 있어 보이는 눈썹 형으로 마음이 강직하고 업무에 충실도가 높아윗사람의 신임이 두터우며 사회적으로 지위, 명예, 덕이 높음. 가정적으로 부모덕이 많으며 집안이 태평하고 자손이 창성하게 됨. 특히 관직생활에 인연이 많음.
범 눈썹	 <그림 5-5>	눈썹털이 길고 두터우며 거칠으나 위엄이 있어 범의 눈썹과 같은 눈썹 형으로 매사에 사리가 분명하고 냉정함. 간교함을 모르며 정직한 성품에 지위와 부를 겸비함. 또 맡은 바 직분에 반드시 성공이 따르고 특히 명예가 높음. 단 여성은 남편 덕이 부족한 게 단점.

<표 5> 계속

분류	눈썹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나 한 눈썹	 <그림 5-6>	눈썹털이 짙고 굵게 말려 있으며, 눈썹머리와 눈썹꼬리가 거의 같은 굵기에 꼬리가 아래로 처진 모양으로 마음은 모질지 못해 인정이 많으나 이상이 고매하지 못하고 결단력이 부족함. 특히 애정 운이 좋지 못한데 독신생활을 하는 남녀에게 많이 볼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어도 고독한 생활을 하는 경향.
칼 눈썹	 <그림 5-7>	마치 삼각검(三角劍)처럼 생겨 가지런하고 털이 곧으며 짙은 눈썹형으로 지모(智謀)가 뛰어나며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자손도 번창함. 특히 장상(將相:장군이나 정승)에게 많이 볼 수 있는 눈썹. 여성은 강직한 성격으로 배우자를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달 팽이 눈썹	 <그림 5-8>	눈썹 끝이 달팽이의 모양과 같이 말려 있으며 눈썹술이 살이 보일 정도로 나 있는 눈썹형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지혜도 뛰어나 문무를 겸비한 재주를 지녔으며 권위와 복록이 많음. 단 형제덕이 없고 여성은 가정이 고독한 단점이 있음.
사 자 눈썹	 <그림 5-9>	눈썹털이 거칠고 술이 많아 탁하며 모질(毛質)이 굵은 모양의 눈썹형으로 성공운이 낮은 단점이 있으나 부귀가 따르고 말년에는 권세도 얻음. 사자 눈썹의 소유자끼리 결혼하면 평생토록 부귀영화가 있고 굴곡 없는 가정생활을 함.
빗 자 루 눈썹	 <그림 5-10>	눈썹머리가 좁고 끝으로 나가면서 넓어져 눈썹꼬리가 흩어져 있는 눈썹형으로 형제간에 정이 없고 복이 분산되어 생활에 고생이 많음. 주거가 항시 불안정하나 조혼(早婚)을 해 일찍 자식을 두면 그 자식복으로 말년을 안정하게 보내는 특징이 있음.
도 깨 비 눈썹	 <그림 5-11>	눈썹 털이 거칠고 눈을 덮은 듯한 눈썹형으로 정신이 건전치 못하고 겉은 인자하며 의리가 있는 듯하지만 속은 음침하고 독한 면이 있음. 표리부동하며 가정에 불화가 많고 항상 운세가 불안정하나 수양으로 덕을 쌓으면 복이 찾아오고 안정됨.
팔 자 눈썹	 <그림 5-12>	좌우 눈썹이 머리는 높고 꼬리는 낮아 마치 두 눈썹의 모양이 여덟 팔자의 모양형으로 두뇌가 명석하고 재예(才藝)가 있으며 성품이 원만. 일생에 금전적 고통 없이 재산은 풍족하나 고독한 경향이 있고 부부간에 이별수와 아들이 없는 경우가 많음.

<표 5> 계속

분류	눈썹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고리 눈썹	 <그림 5-13>	반원처럼 휘어져 있고 눈썹의 두 끝이 눈과 닿은 듯한 눈썹형으로 성품이 음침하고 소극적이며 운세가 좋지 않아 일에 막힘이 많고 여성은 이별수가 으며, 음란하고 고독해 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됨.
버들 눈썹	 <그림 5-14>	모양이 버들잎 같이 생긴 눈썹으로 눈썹털이 거칠고 술이 많은 눈썹형으로 성격이 대범하고 친우간에 신의가 두터우며 정의감도 강함.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지만 부모와 동기간의 덕과 정이 부족하고 자식을 늦게 두는 단점이 있음.
청수 눈썹	 <그림 5-15>	눈썹이 수려하고 가볍게 굽은 듯한 모양이며 눈썹 끝이 단정한 눈썹형으로 전체적으로 눈썹 길이가 다른 눈썹에 비해 길고 지체가 뛰어나 여러 면에 재능이 있음 처와 자손의 안락함을 누리며, 관직에 인연이 깊음.
뿔긴 눈썹	 <그림 5-16>	눈썹 중간이 끊겨진 것 같으며 빛이 누렇거나 붉은 모양의 눈썹형으로 재물의 성공과 실패가 빈번하고 동분서주하나 결과가 미진하며 항상 시비구설이 많고 편모를 섬기거나 이복형제가 있는 것이 특징. 대체로 남녀 모두 부부 애정운이 약해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음.
누에 눈썹	 <그림 5-17>	눈썹의 머리가 굽은 듯하여 마치 누에가 잠자는 것 같이 생긴 눈썹형으로 성품이 침착, 방정하고 학문과 예술성이 뛰어나며 임기응변이 탁월함. 재물복도 많고 대체로 관료나 예술 계통의 종사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음.

눈썹이 갖고 있는 운명적 특징을 종합해 보면 근친, 특히 형제간의 인연, 형제수, 그 사람의 능력, 의지, 부동산 관계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눈썹은 애정운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눈썹이 수려하면서 가지런하고 윤택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덕을 본다. 반면 눈썹이 헝클어지고 엉켜 있는 듯하면 혼담에 장애가 있거나 가정운이 좋지 않다. 여성으로서 한 일자 눈썹의 소유자는 여자다운 상냥함과 애교가 심히 부족하고 부부간의 애정에 보이

지 않는 알력으로 가정이 적막하며 배우자 때문에 고생을 한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면 흥이 감소될 수 있다.

3) 눈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와 인격, 감성뿐 아니라 장래성 혜안(慧眼), 성욕, 건강 등을 알 수 있다. 인체를 작은 우주라고 하면 눈은 일월(日月)을 상징해 왼쪽 눈을 태양(太陽), 오른쪽 눈은 태음(太陰)이라고 한다. 맑고 흑백이 분명하며

상하 눈꺼풀도 티없이 깨끗해야 길상이나 혼탁 돼 있고 흰자위가 검은 동자보다 많으며 살기(殺氣)가 서려 있으면 흉상이 된다. 동양의 관상학에서 눈의 크기는 보통 가로 3cm 정도가 표준이며 그 이상을 큰 눈으로 개방적인 성격이며, 그 이하는 작은 눈으로 현실적인 성격으로 본다.

다음은 눈의 형태별로 인상학적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표 6> 눈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분류	눈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용 눈	 <그림 6-1>	검은 동공에 광채가 있으며 눈꼬리 부위가 살짝 올라간 듯한 형으로 사리가 분명하며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사회적 명망을 얻음.
소 눈	 <그림 6-2>	모양이 크게 둥그스름한 형으로 정신과 기백이 넘쳐흐르고 거부(巨富) 되는 경우 많음.
공작 눈	 <그림 6-3>	윤곽이 분명하고 동자가 검고 빛나면 성품이 청렴결백하며 애정생활에 보기 드문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 가정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음.
범 눈	 <그림 6-4>	크고 동자가 약간 누르스름한 빛을 띠는 모양에 둥글고 부리부리한 형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부귀와 명예를 누리나 고독함.

<표 6> 계속

분류	눈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거북이 눈	 <그림 6-5>	눈동자가 둥글고 수려하며 윗 눈꺼풀에 가는 주름이 있는 형으로 정이 많고 안정된 성품으로 뜻과 이상이 원대하고 건강하게 발전 함.
기러기 눈	 <그림 6-6>	눈동자가 먹처럼 검은 가운데 금빛 같은 색을 띠었으며 눈 위아래에 기러기 모양의 주름이 길게 있는 형으로 사교 수완이 기발하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며 낭만적 기질이 있음.
학 눈	 <그림 6-7>	흑백이 분명하고 눈빛이 청초한 형으로 평생 높고 깊은 이상으로 뜻을 관철시킴.
원숭이눈	 <그림 6-8>	눈동자가 위로 붙은 듯하고 아래 눈꺼풀에 주름이 가지런히 잡혀 있으며,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작이 매우 민첩한 형으로 부귀가 따르고 재치가 있음
코끼리 눈	 <그림 6-9>	상하꺼풀에 물결진 주름이 있고 수려하며 눈꺼풀이 길고 눈이 가는 인자스런 형으로 복록이 많고, 장수하며 안정된 가정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음.
도화 눈	 <그림 6-10>	항상 물기가 촉촉히 젖어 있으며 요염한 눈웃음을 치고 결눈질을 잘하며,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형으로 성적매력이 있어 연예계로 진출 하나 자연 도태되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이 관상학에서는 인간의 눈을 동물의 형으로 분류해서 약 39가지로 나누는 데 이미 열거한 형태 이외에도 많은 형태가 있다.

애정의 행불행을 알 수 있는 눈의 관상 부위는 바로 눈꼬리이다. 이 눈 부위에 검은 점이나 사마귀가 있으면 이성과의 스캔들이 많게 된다. 또 흉터가 있으면 이별수가 있는 경향이 짙다. 눈꼬리 부위가 움푹 들어간 사람은 배우자에게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잦은 언쟁으로 가정불화를 초래하기 쉽다. 젊은 여성 가운데 눈꼬리에 잔주름이 많이 있으면 애정운이 불길하여 부부화합이 어렵고 남

성은 부부간에 불만이 많게 된다.

<표 7> 눈꼬리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그림 7-1>	 <그림 7-2>	 <그림 7-3>
눈꼬리가 깨끗한눈	눈꼬리가 주름이 많은 눈	눈꼬리점이 있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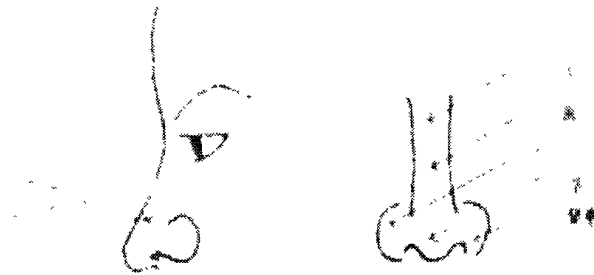
눈꼬리는 원래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상이며 이런 사람이 사고방식도 성격도 온화하다. 대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사람은 용기가 있고 감각이 예민하며 두뇌 회전이 좋다. 특히 여성의 경우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면 신경과민에 히스테릭한 면이 잔재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품에 질투가 많아 배우자를 피곤하게 하는 수가 많다. 올드미스 중에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눈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는 사람은 남자의 경우 권좌에 인연이 많고 마음이 느슨하며 선비풍의 성격이지만 자주성이 결여된 단점이 있다. 여성의 경우 애정운이 산란하여 결혼을 해도 고독한 생활을 하는 수가 많다. 끝으로 눈이 아무리 좋은 상을 지녔다 하더라도 안정감 없이 자주 눈을 깜박이거나 결눈질을 해 보는 습관이 있으면 운세가 불안정해지고 선천적으로 타고 난 복도 잃게 된다.

4) 코

코는 얼굴의 중심이며 오행상(五行上)으로 토(土)에 속하며 금전 운세, 재수(財數) 등을 판단하는 재백궁(財帛宮)이고 또한 그 사람의 운세와 생활능력, 문화의 척도, 등을 알 수 있는 부위이다.

코는 얼굴의 중앙에 위치한 까닭에 인생의 중심인 중년의 운세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며, 인체 구조상 코는 폐(肺)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폐가 열(熱)이 있으면 코가 막히고 폐가 청(淸) 하면 코가 통(通)하여 호흡이 잘되고 후각도 민감하

듯 건강운도 볼 수 있는 부위가 된다. 코의 길이는 얼굴 길이의 3분의 1이나 3.5분의 1이 되는 것이 표준이며 콧머리(관상용어로 준두: 準頭)가 둥글고 콧구멍이 훤히 보이지 않으며 양쪽 콧방울(관상용어로 정위: 庭尉, 난대 : 蘭臺)이 가지런하고 두둑하면서 콧대가 반듯해야 길한 상이다.



<그림 10> 코 부위별 명칭

코의 길이와 넓이와의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가 넓을 수록 외향적이고 좁을수록 여성적인 성품에 내향적이고 신경이 예민한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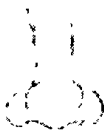
관상학에서 코의 길이는 사고력과 절도(節度)의 상징으로 얼굴 길이의 약 3분의 1이나 3.5분의 1을 표준으로 하는데 표준보다 긴코의 소유자는 성격이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며 매사에 치밀한 성품에, 융통성이 부족하고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으로 밀고 나가려 하는 경향으로 대인관계가 서투른 점이 있다. 이런 긴 코의 소유자는 자기 주관대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좋은데 학자, 예술 계통, 연구직에 적성이 맞는다. 또한 너무 지나치게 긴 코의 소유자는 형이하학적인 면 보다는 형이상학적인 면만을 추구하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고 독신으로 지내는 경향이 많으나 종교직에 종사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짧은 코의 소유자는 타인과 융화력이 풍부하고 주위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처신 하는 재능이 뛰어나며 흔히 하는 말로 '눈치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손님을 상대로 하는 장사에 적성이 맞는다.

또한 코의 높이는 문화의 척도로서 활동 반경과 감수성을 나타내는데 코가 낮으면 사회적 활동 범위가 위축되고 둔한 면이 잠재되어 있으며 코가 높으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관이 또렷하나 고집이 강한 면도 있다.

코는 얼굴의 왕좌로서 생활의 동력원(動力源)이 되는 금전 운세를 판단하고 인품도 알 수 있는 부위이며, 미관상 미모의 결정적 주요 포인트이며 관상학적으로 부귀, 빈천, 성격에 많은 운명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코의 형태나 모양, 크기는 생활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학설이 인류학적 연구로서 밝혀졌다. 코의 형태로 지적 능력, 행동력, 지도력, 그리고 성적 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데 관상학에서 코의 모양을 물형(物形)으로 분류하였는데 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코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이름	코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용코 (龍鼻)	 <그림 8-1>	코끝(준두)이 높고 가지런하며 콧대가 곧고 바르며 특히 복서골 ¹⁾ 이 폭 꺼지지 않고 솟아 있는 형으로 관공직에 인연이 깊고 지위와 명예덕이 많으며 매사에 정열적임. 옛날엔 정승급에까지 오른다는 부귀지상(富貴之相)의 코.
범코 (虎鼻)	 <그림 8-2>	코가 둥글고 살이 두둑하며 콧구멍이 크지도 훤히 보이지도 않고 양쪽 콧방울이 거의 없는 것 같이 작은 형으로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강직함하고 귀(貴)히 되고 특히 명예와 이름을 사방에 날리는 공명지상(功名之相)의 코.
마늘코 (蒜鼻)	 <그림 8-3>	콧대가 평평하고 작으며 좌우 콧날개와 코끝이 가지런하며 그 모양이 마치 마늘과 같은 형으로 마음이 유순하고 정이 많으며 형제 우애가 좋고 초년에는 고생이 있으나 중년부터 발복(發福)하여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코.
(盛囊鼻) 주머니코	 <그림 8-4>	코의 모양이 주머니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오그려 놓은 것 같은 형으로 양쪽 콧날개가 작고 콧구멍 옆이 가지런하고 둥근 모양으로 일생을 통하여 금전운이 왕성하고 초년에서 말년까지 굴곡 없는 순탄한 생활 속에 부귀공명하며 성품이 호탕하고 추진력이 강한 코.

<표 8> 계속

이름	코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소 코 (胡羊鼻)	 <그림 8-5>	크고 코끝(준두)이 풍만하며 콧대가 복스럽게 둥글고 콧날개(정위, 난대 부위)가 가지런하고 수려한 형으로 귀(貴)히 되고 재록이 풍요로워 일신에 영화가 가득하고 성품이 섬세하고 도량이 높은 코
사자 코 (獅子鼻)	 <그림 8-6>	코끝(준두)이 큼직하고 콧대는 약간 낮은 듯하며 콧날개(정위, 난대 부위)가 넓고 크며 풍만한 형으로 강건하고 과단한 성품에 운세가 맑으며 용기와 실천력이 뛰어나 성공이 빠르며 성적 능력이 뛰어난 코
쓸개 코 (懸膽鼻)	 <그림 8-7>	달아 댄 돼지의 쓸개(懸膽) 모양으로 생긴 코로 코끝이 둥근 듯 가지런하고 콧대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코 선이 부드러우며 콧날개가 작은 듯한 형으로 코 중에서 가장 이상형의 코로 합리적이고 처세 매너가 깨끗하며 관계(官界)나 정계(政界)에 우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코
물소 코 (伏犀鼻)	 <그림 8-8>	코 모양이 옆드린 물소 모양으로 콧대가 이마까지 솟은 듯하고 살과 뼈가 적당히 도톰하며 콧날개가 힘차고 안정감이 있는 형으로 정신이 맑고 기백이 넘치며 도량이 크고 관직운이 뛰어난 코
원숭이 코 (鷹嘴鼻)	 <그림 8-9>	콧대(산근, 연상, 수상)가 크고 평평하며 양쪽 콧날개(정위, 난대)가 분명하고 코끝(준두)이 도톰, 풍류하며 불그스레한 빛을 띠는 형으로 부(富)를 축적 하지만 콧구멍이 흰히 보이면 잔피에만 능하고 재산을 모으지 못하며 빈궁하게 내며, 의심이 많고 인색한 코.
매부리 코 (鷹嘴鼻)	 <그림 8-10>	매의 부리 모양으로 코끝이 뾰족하고 굽은 모양이며 콧대가 튀어 나오고 살이 없으며 콧날개(정위, 난대)가 짧고 오그라져 있고 코끝이 입술을 향한 형으로 욕심이 많고 간교하여 남을 이용하는 면이 있으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정이 적막하고 이별수를 겪는 경향이 많으며 운세도 매우 유동적인 코.

<표 8> 계속

이름	코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개 코 (狗鼻)	 <그림 8-11>	콧대(연상, 수상 부위)에 뼈가 솟고 콧날개(정위, 난대)가 빈약하고 콧구멍이 뾰족히 보이는 형으로 의리는 있으나 도벽이 있고 궁핍한 생활을하며, 개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도죄로 인해 수배를 받는 운세의 코.
붕어 코 (鱗魚鼻)	 <그림 8-12>	콧대(특히 산근 부분)가 가늘고 작으며 코끝(준두)이 아래로 숙여져 있고 코 전체가 마치 물고기 등마루 같이 생긴 형으로 로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부모, 형제, 배우자의 덕이 전혀 없으며 인생 역경이 많은 코.
소 코 (牛鼻)	 <그림 8-13>	콧등(산근 부분)에서 코끝(준두)까지 두둑하고 풍만하며 콧날개(정위, 난대)가 모양이 분명한 형으로 복록이 무궁하고 가업(家業)을 크게 이루며 여러 사람에게 관대하고 어진 성품에 부지런하나 한번 노하면 상당히 무서운 면이 잠재해 있는 성향의 코.
절통 코 (截筒鼻)	 <그림 8-14>	둥글고 긴 대롱을 일직선으로 쪼개 엮어 놓은 형으로 코끝(준두)이 가지런하고 콧대가 곧고 바르며 산근이 약간 연약하고 연상, 수상이 풍만하며, 성품이 곧고 온화하며 중년부터 재산을 모아 크게 성공하여 일생동안 안락한 생활을 하는 중화지덕(中和之德)의 코.
오목한 코 (偏凹鼻)	 <그림 8-15>	콧대(연상, 수상)가 낮고 가늘며 코와 얼굴이 균형을 잃고 코끝(준두)이 넓고 뾰족하며 콧날개가 협소한 형으로 잔병으로 심신의 고통도 많으며, 소극적이고 단순한 성격으로 큰일을 하지 못하며 궁핍한 코.
봉우리 코 (孤峯鼻)	 <그림 8-16>	살집이 없고 콧등이 산봉우리처럼 외롭게 솟았으며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좌우 관골이 낮아 코만 홀로 뾰족히 높아 보이는 형으로 마음에 번민이 많고 고독한 코.

<표 8> 계속

이름	코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굽은 코 (彎曲鼻)	 <그림 8-17>	옆에서 보아 코가 세 번 휘어진 형으로 세 번 휘어진 것을 반음살(半吟煞)이라 하고, 세 번 굽은 것을 복음살(伏吟煞)이라 하는데 코가 반음살이면 대(代)를 이을 자손이 없고 복음살이면 일생 눈물 흘릴 일이 많으며 남자는 홀아비로 여자는 과부로 보내는 등 부부운이 적막한 코.
검봉 코 (劍鋒鼻)	 <그림 8-18>	코대가 칼등(刀背)과 같고 코끝에 살이 없어 콧구멍만 크게 보이는 형으로 육친(六親)의 덕이 없고 자손을 극(剋)하며 성품이 꾀계(詭計 : 남을 속이는 것)에 능하며 성질이 흉포하고 일신이 고독하고 운세가 불안정하여 빈궁한 코.
노루 코 (獐鼻)	 <그림 8-19>	코 전체가 작고 코끝이 뾰족하며 콧구멍이 흰히 보이고 양쪽 콧구멍 주위에 잔주름이 많은 형으로 의리가 없고 시기심이 많으며 매사에 유시무종(有始無終)하고 풍파와 좌절이 많아 직업 변동이 많으며 고단한 운세의 코.
성성이 코 (猩鼻)	 <그림 8-20>	코끝이 높고 듬직하며 콧날개가 작은 형으로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깝게 있고 머리털이 거친 듯하며 얼굴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 의(義)가 있는 고귀한 성품으로 호쾌한 기상 속에 운세가 편안하고 부귀쌍전(富貴雙全)하는 코.
사슴 코 (鹿鼻)	 <그림 8-21>	코대가 풍만하고 코끝이 둥그스름하며 콧날개가 수려한 형으로 천성이 소박하고 인자하며 너그러운 반면에 성질이 급한 면이 있으나 복록이 많아 가산(家産)이 증진되고 매사에 발전하는 코.
노척 코 (露脊鼻)	 <그림 8-22>	코에 살집이 없고 코뼈만 날카롭게 솟았으며 콧구멍이 보이고 전체 모양이 거칠고 빈약한 형으로 눈빛이 맑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주관이 약하고 복이 적어 고독하고 경제적 고통이 있는 코.

이상과 같이 22종류의 코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코의 이름도 다양하고 코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 중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체를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나 자존심의 상징적 표상이다. 코의 모양 또한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입

입은 단지 말을 할 뿐 아니라 심중(心中)을 표현하는 곳이기에 상벌(賞罰)과 시비(是非)를 일으키는 기관이므로 만물조화(萬物造化)의 관문이라 한다.

또한 입은 생활력, 언어구사 능력, 상하관계, 성격, 애정이나 성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입은 큼직하고 입술이 가지런하고 틀어지지 아니하며 이가 들어나 보이지 않아야 좋은 상으로 부귀를 누리고 형통함에 있어서 가정이 평안해진다. 또한 입의 빛깔은 입술의 빛깔을 말하며 빨간색이 최상이고, 푸른색은 재앙이며, 창백하거나 검은 색은 질병을 예지하며 일시적으로 자주색, 회면서 붉은 색, 황적색 등을 띠게 되면 좋은 일이 닥칠 징조라고 한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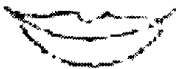
입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그에 따른 특징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입술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이름	입술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넉사자 입 (四字口)	 <그림 9-1>	입의 언저리가 밝고 맑으며 입이 크고 네모져서 마치 네 사(四)자 모양으로 생겼으며 입 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고 약간 위로 올라간 듯한 입의 형으로 총명하고 재주가 많으며 학문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등 부귀를 겸하는 최길상의 입. 벼슬과 인연이 깊음.
모난 입 (方口)	 <그림 9-2>	입을 다물면 상하 입술이 모가 난 듯 단정하며 입술이 붉고 윤택하고 이가 드러나지 않고 백옥 같이 흰 게 특징인 입의 형으로 정직하고 점잖으며 식록(食綠)이 무궁하며 부귀 명예로 만사형통하게 됨.

33) 김성현,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1992, p.234.

<표 9> 계속

이름	입술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앙월구 입 (仰月口)	 <그림 9-3>	초승달이 옆으로 누워 있는 모양으로 입끝이 위로 향하고 입술이 불그스레하며 얇은 입의 형으로 성실한 성격에 문학적 재예가 있고 금전운도 좋으나 너무 얇으면 복이 감소되고 애정운이 약함.
활 입 (彎弓口)	 <그림 9-4>	입 모양이 마치 활을 잡아당긴 것 같은 모양으로 입술이 도톰하고 입술선이 바른 입의 형으로 정신이 맑고 건강하며 훈훈한 성격으로 재산도 풍족하고 일생 순탄하며 특히 중년부터 대발전이 음.
돼지 입 (猪口)	 <그림 9-5>	윗입술이 길고 거칠고 넓으며 아랫입술이 뽀족하고 작으며 항상 침을 흘리는 습관이 있는 입의 형으로 마음이 간교하여 잔꾀에 능하고 성격이 다소 흉포하며 운세도 불길하여 생활에 여유가 없고 빈궁하며 직업 변동이 심함.
불부는 입 (吹火口)	 <그림 9-6>	입 모양이 마치 촛불을 끌 때 불을 부는 것 같이 생겨 항상 동그랗게 벌려져 있고 입술이 뽀족한 입의 형으로 노력에 비해 소득이 없고 일에 장애 좌절이 많으며 평생을 분주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음.
주름진 입 (皺紋口)	 <그림 9-7>	입술 위에 주글주글한 주름이 있고 말할 때에 우는 것 같은 모양을 한 입의 형으로 고독한 생활을 하며 일시적 성공은 있으나 결국 파재(破財)하는 등 말년이 심히 고독함.
앵도 입 (櫻桃口)	 <그림 9-8>	입술이 붉고 도톰하며 입은 크나 다물면 작게 보이는 입의 형으로 웃는 모습이 마치 연꽃과 같이 아름다운데 마음씨가 온유하고 두뇌가 명석하며 벼슬길에 오르고 재물도 쌓는 발전 발복함.
소 입 (牛口)	 <그림 9-9>	아래 윗입술이 모두 두텁고 풍만하여 입이 매우 큰 형의 입. 마음이 인자하고 생활관이 건전하며 평생 동안 의식이 풍족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이 많음.

<표 9> 계속

이름	입술의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용 입 (龍口)	 <그림 9-10>	상하 입술이 두텁고 가지런하며 빛이 밝고 구각(口角 : 입술 양 모서리)이 야무지며 수려한 입의 형으로 천하에 경륜(經綸)을 펴고 공을 세워 높은 벼슬을 하며 통솔력이 뛰어나.
범 입 (虎口)	 <그림 9-11>	입이 넓고 크며 야무지게 다물어져 있고 입을 벌리면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큰 입의 형으로 덕망 과 위엄이 있고 귀(貴)하게 되지 않으면 크게 부자가 됨.
양 입 (羊口)	 <그림 9-12>	입이 길게 앞으로 솟아 뾰족하고 상하 입술이 얇으며 수염이 거의 없는 입의 형으로 까다로운 성격으로 뜻과 소망에 좌절이 많고 빈천하며 허망한 일이 많음.
원숭이 입 (猴口)	 <그림 9-13>	두 입술이 길고 인중이 대나무를 잘라 놓은 것과 같이 반듯하게 생긴 입의 형으로 모든 면에 계산이 분명하고 다소 인색하나 평생 의식이 풍족하고 건강하여 수복(壽福)을 누리게 됨.
메기 입 (鮓魚口)	 <그림 9-14>	입은 크지만 입술 양끝이 아래로 처져 있으며 입술이 얇고 둥글지 못하며 입을 다물면 가운데가 뾰족한 입의 형으로 꾀하는 일마다 액(厄)이 따르며 빈궁한 생활을 함.
붕어 입 (鱗魚口)	 <그림 9-15>	입이 몹시 작아 마치 붕어 입과 흡사한 입의 형으로 일생에 고생이 많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으며 재물이 흩어짐.
복선구 입 (覆船口)	 <그림 9-16>	입 모양이 마치 배(船)를 덮어놓은 것 같은 입의 형으로 입술이 쇠고기 빛갈과 같고 단정치 못한데 부평초 같은 인생살이를 하며 주거환경이 자주 바뀌고 금전복 없음.

6) 턱

입 아랫부분 전체를 턱이라 하며 관상용어로 지각(地閣)이라고 한다. 턱은 주거, 가정, 애정, 자식운등을 알 수 있는 부위이다. 턱은 둥글고 풍만하며 그 폭이 넓은 것이 길상이다. 일반적으로 넓고 풍부한 턱은 도량이 넓고 온화하며, 물질운이 좋고, 뾰족하고 좁은 턱은 현실에서의 고충이 많은 이상주의자 타입이다. 이 밖에도 턱은 광(廣), 협(狹), 장(長), 단(短), 비(肥), 유(庠), 각(角), 원(圓)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턱 모양은 그 특성을 달리하며 운세와 성격을 지배하고 가늠한다.

<표 10> 턱 형태에 따른 인상학적 이미지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큰 턱	활달하고 스케일이 크며 원만한 성격에 스태미너가 좋아 건강하고 가정운이 좋음. 큰 턱의 여성은 미인형은 아니지만 부잣집 만며느리감으로 금전운이 좋고 애정 표현도 풍부. 큰 턱이 반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실업가형이고 끝이 뾰족하면 인색하며 상인형이 많음.
작은 턱	지구력이 부족하고 체력이 약하며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치밀한 성격이 많음. 턱 끝이 뾰족하고 작은 턱의 소유자는 학술, 예술, 의학, 기술 등이 적성에 맞고 성공률이 높음.
이중 턱	원만하고 섬세한 성품에 사교성과 언변이 좋음. 남성의 경우에는 넉넉한 복을 받을 상으로 금전 걱정을 안해도 되는 형으로 여성의 경우는 성적 매력이 있고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턱이며 가정주부로서 행복을 창출하게 됨. 이중턱이라 하여도 눈이 도화눈이고 코가 예리하면 금전에는 걱정이 없으나 애정에 유혹이 많고 화류계통에 종사함. 턱의 중앙이 갈라져 있는 듯하거나 턱 중앙이 움푹 패인 듯한 형은 창작력이 풍부하고 예능이나 예술 계통에 천부적이 재질이 있고 대단한 정열가이나 여성은 고독한 면이 잠재해 있음.
모가 난 턱	체력과 의지력이 강하여 어떤 곤란이 와도 극복해 나가는 형으로 군인, 스포츠맨 중에 많은 상. 그러나 모가 난 턱의 소유자가 만약 여성이 결여되면 흔히 말하는 깡이 세고 자제력이 약해 폭력성을 띠게 되며, 모가 난 턱을 가진 여성은 활동적이고 기가 세고 애정 표현이 서투르며 혼전 혼후를 막론하고 사회 일선에서 활약함.

<표 10> 계속

형태	인상학적 이미지
중앙이 솟은 둥근턱	비상한 열의와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사리판단이 정확함. 다정한 감정속에 성의와 끈기로 상대방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음.
악골이 튀어나온 턱	센스가 부족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애정운이 약하고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 인덕이 없음.

이상과 같이 얼굴의 각 부분별 인상학적 이미지가 서로 상호보완을 이루며 사람의 전체적인 얼굴 인상을 결정짓게 되는 데, 이것으로 첫인상의 느낌을 결정짓게 된다. 얼굴의 느낌에서 나오는 인상은 작품의 배역 설정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위에서 예시한 인상학을 연계시켜 발전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시청자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만인 공통의 느낌을 주는 성격 분장에 꽤 비중을 두어야 하는 분장인의 과제를 지닌다. 관객들은 배우의 얼굴에서 그 인상을 읽고 그 성격을 납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인상학이 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없다.

훌륭한 분장은 훌륭한 미술품과 공연과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한 준비와 정의의 산물인 것이다. 인상이 그 배역에 딱 맞을 정도로 흡사하면 그리 큰 분장은 필요가 없지만, 그와 반대일 경우에는 그 배역에 맞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시간·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산업이 지배하는 영상의 시대에 경제원칙(經濟原則)³⁴⁾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배역 설정시 분장과 인상학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인상학에 관해서는 배우나 분장사가 직면해야 하는 성격 표현을 위해 꼭 접근해야 할 분야이며, 분장사 개개인의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TV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인물이 분장화되어 표현되어지는가를 살펴보자.

34) economic principles : 경제 행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주의.

제Ⅲ장. TV드라마 성격분장의 이해와 유형별 이미지 분석

제 1 절 TV 드라마와 성격분장의 이해

1. TV 드라마의 이해

TV 드라마³⁵⁾는 영화, 라디오 예술에 이어서 등장했지만, 기계매체를 필요로 하는 예술인만큼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간단하지 않으며, 텔레비전이 생기기 이전의 무대극·영화·라디오 등의 요소를 모두 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이다. 즉 한정된 시간 내에 특정한 장소에서 창조되는 연기예술(演技藝術)이란 점에서는 연극적이나,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되어 브라운관 매체를 통해서 송출된다는 점에서는 영화적이다. 그리고 전파에 실어서 각 가정에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라디오 적(的)이다. 따라서 드라마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영화와 무대극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영화는 시각에 호소하는 것을 제1의(第一義)로 삼고 청각적인 것은 제2의이지만, 오늘날의 무대극은 시각에 호소하기보다 청각에 호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TV 드라마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에 같은 비중을 둔다.

영화는 지금 텔레비전에 뒤지지 않으려고 화면의 호화로운 구경거리를 보여줌으로서 박진감 넘치는 극적 감동을 안겨주려는 시도를 한다. TV 드라마는 안방

35) Television drama: 텔레비전을 매체로 하는 드라마 형식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면서부터 사용하게 된 방송극

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과 협소한 화면 테두리 속에서 극적인 감동을 효과적으로 자아내게 하는 것을 큰 과제로 삼는다. 협소한 화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청각적인 비중을 늘리는 경향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화면에 비치는 인물상은 실제보다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할 수 있지만, 음성이나 효과음은 실제 그대로 구사해서 박진감을 더해주는 방법을 쓴다. 이것이 시청자에게 현실감을 안겨줘서 암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작은 화면의 결함을 감쪽같이 보완한다.

TV 드라마의 또 하나의 특성은 친근감을 갖게 한다는 데 있다. 영화나 무대극은 극장과 같은 특수 분위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되는 극은 허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TV 드라마는 동시성(同時性)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건들이 마치 현실적으로 어디에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감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는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대상들을 브라운관을 통해서 바로 옆의 일처럼 대할 수가 있어 심리적으로 친근감을 갖게 해 준다. 즉, TV 드라마가 다른 연극예술과 다른 가장 큰 요소는 친근성과 동시성 및 제한성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 TV 드라마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56년 5월 상업방송인 HLKZ-TV가 개국한 때부터이다. 첫 작품은 홀워시 홀 원작 《사형수》를 최창봉(崔彰鳳) 연출로 방송한 것이었다. 이어서 61년 12월 말 KBS-TV가 개국되면서 TV 드라마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금요극장·TV 신극장·KBS 무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TV 드라마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80년대 초의 방송공영화(放送公營化)로 제도와 체질을 크게 탈바꿈함에 따라 TV 드라마도 급격한 변모를 겪었다. 또한 세계적인 TV 드라마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한국의 TV 드라마도 대형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KBS-TV의 ‘TV 문학관’과 MBC-TV의 ‘기업 드라마’ 등이 그 좋은 본보기이다. 그리고 KBS-TV의 《개국(開國)》, MBC-TV의 《조선왕조 500년》 등

대하(大河)드라마의 경향도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컬러TV 시대로 들어서자 실록 다큐멘터리가 화려하게 부상하였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정치적인 묘와 금기로 오랫동안 정체를 보였는데,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을 MBC-TV가 극화하면서 이 금기를 깨고 다큐멘터리를 극적 감동으로 심화시켜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한편 외국 작품의 모방·흥미추구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간의 영상기술의 개발에 힘입어, 박정란(朴貞蘭)의 《울밑에 선 봉선화》가 호응을 얻었고, 장기 방영중인 《전원일기 : 田園日記》는 기억할 만한 우리의 작품이다. 또 대하 드라마 《여명(黎明)의 눈동자》는 민족의 분노와 상흔을 동시에 공감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것이다.

TV 드라마는 그 유형에 따라 일일 연속극, 주간 연속극,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주말 연속극, 주간 단막극, 주간 연속단막극, 미니 시리즈, 대하 드라마, 일일 시추에이션극, 특집극 등으로 분류된다. 또 내용의 시대변경에 따라 사극, 시대극, 현대극, 미래극, 설화극 등으로 나뉜다. 사극 즉 고전극은 단군 시대부터 1910년 한일합방이전이며, 시대극은 일제시대부터 제3공화국까지, 현대극은 제5공화국 탄생부터 현재까지 시대상을 각각 담은 것이다. 미래극 즉 모험극은 미래를 상상력과 추리력으로 현실화 한 것이며, 설화극인 추상극은 각 나라의 신화 전설등을 줄거리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극으로 만든 작품 즉, ‘전설의 고향’, ‘피터 펜’, ‘아라비안 나이트’등이다.³⁶⁾

2.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적용

TV 방송이란 화면에 재현된 영상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 인식시키는 것이다. 또한 TV의 특성은 영화가 대형스크린에 의한 확대현상에 비하여 실체보다

36) 김봉천 논문, 전계서

축소되어 보이는데 있다. 실제보다 축소된 영상에 잡다한 여러 색상이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보여진다면 그 화면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보이게 된다. 그래서 TV분장은 절제되고 잘 조화된 색상의 배합과 섬세하고 간결한 분장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TV분장은 색채 조화와 색상의 절제에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³⁷⁾

TV 드라마의 경우 연출자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연출자다. 연출자는 작가와 함께 극본을 구성하고, 연기자 선정·스텝 구성 등 드라마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그만큼 연출자의 의도대로 드라마는 구성되고 진행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분장도 연출자와의 협의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출자는 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분장도 전문 영역인 만큼 분장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드라마에 적합한 성격 분장이기를 원한다. 분장은 배우의 중요한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배우의 품모를 감추거나 왜곡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는 수단.”³⁸⁾이다.

분장은 연기자의 외모에다 극중 인물이 요구하는 변화를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얼굴의 특징을 파악하고 변형, 조화시켜 성격에 맞게 표현시켜야 한다. 그래서 극중 인물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그만큼 분장사에게는 사람의 얼굴을 인상학적 측면을 고려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을 구비하였을 때 성격 분장의 질을 높일 수 있다.³⁹⁾

성격분장을 표현하기에 앞서 극중 인물에 맞는 캐릭터를 창출함에 있어서 등장인물을 연기하게 될 연기자의 안면상 모든 구조를 분석하고 배역에 맞게 적절히 변형시켜 효과적으로 표현될 분장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7) http://www.sbsacademy.co.kr/edu/makeup/r_bottom02.html#i

38) 박수명 외, 『분장(공연예술 총서 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1, p.11.

39) 장우식과의 인터뷰, 2003년 4월

안면부분인 이마·눈썹·눈·코·입·턱의 변형에서 성격분장이 시작된다. 이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마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회화적인 방법이나 입체적인 방법 사용하는 데, 노년 주름살의 경우 배우의 찡그림을 유도해서 본래의 가지고 있는 주름살 위에 도란⁴⁰⁾을 가늘게 긋고, 밝은 부위에 하이라이트⁴¹⁾를 칠하여 튀어나온 명암을 나타낸다. 다른 방법으로는 라텍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눈썹의 위치나 모양은 얼굴의 표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위이다. 배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극중 인물의 캐릭터의 성격을 눈썹의 움직임 하나로도 충분히 표현되어진다. 눈썹의 모양이나 색깔 또는 위치가 사람마다 가지각색이다. 중년의 남성은 눈썹의 질이나 노년에 갈수록 짙은 정도가 약화된다. 극중 인물에 맞게 도란으로 짙은 정도를 조절하여 눈썹을 그려주거나 눈썹을 없애는 표현을 하거나, 눈썹을 지우고 새로운 눈썹을 덮는 등 방법이 있다. 더마왁스 같은 재료를 사용해 그 위에 배역에 맞는 눈썹을 그려주거나 심는다.

눈은 표정이 가장 풍부하며 인간의 체험이나 감정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드라마상의 배우들은 눈을 통하여 인물의 배역을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그 말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중의 하나인 것이다. 눈 밑에 어두운 갈색을 바르면 아픈 눈이나, 창백해 보이기도 하고 붉은 색을 넣으면 술취한 사람이나 정신병자의 인물로 표현되어진다. 또한 피부색보다 밝은 색을 넣어 부은 눈을 표현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눈의 선명도가 변해지기 때문에 노년으로 갈수록 어두운 그늘을 깊게 들어가는 효과로 표현되어진다.

코는 얼굴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코의 변화는 얼굴 전체의 균형에 많은

40) Dohran: 무대화장에 사용하는 유성분(油性粉). 무대화장과 입체화장에 사용한 독일의 도란사(Dohran 社)가 유성분, 즉 그리스페인트(grease paint)를 특별히 선전한 데서 제품의 명칭이 그대로 회사의 이름이 되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유성화장을 대표할 만큼 널리 사용되었다.

41) 분장작업시 통용되는 단어. 흰색과 같은 밝은 도란을 써서 돌출되게 하는것.

영향을 미친다. 코의 모양은 먼저 그 높이에 좌우된다. 대개 얼굴에 비례해서 코의 넓이도 좌우한다. 코를 변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방법이 있으나 회화적 방법이나 입체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입은 눈이나 눈썹과 마찬가지로, 극중 배역과 일치할 때는 입술의 선을 약간 나타내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입술 전체에 도란으로 발라주고 파우더로 입술의 윤기를 제거한 후 캐릭터에 맞게 수정하여 준다. 예를 들면 병적인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들은 입술 색깔을 붉지 않게 한다. 그 배역에 맞춰 입술 모양이나 색의 정도를 고려하여 표현해야 된다.

턱은 입술을 경계선으로 아래턱과 윗턱으로 나뉜다. 입술아래에 위치한 턱과 연결하여 귀밑까지 닿아 윗턱으로 구분되며, 코 양측에서 뻗어 내린 주름을 경계로 하여 위턱과 아래턱을 구분된다. 노년으로 갈수록 이가 빠지고 입이 움푹 꺼져 들어가고 법령이 깊게 파지기 때문에 아래턱은 더 돌출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성격분장의 방법들과 드라마에서 좀더 리얼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장면에 따라 특수분장을 접목하는 경우가 많다.

3.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과정

TV 드라마의 성격분장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을 맡은 분장사가 작품을 충분히 읽고 분석한 다음 연출자의 기획 의도와 연출 기법, 작가의 작품 의도, 등장 인물의 성격 및 역할, 극의 흐름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연출의 의도에 따라, 작품의 장르에 따라 분장의 성격도 틀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연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에 임한다면 민속촌 한

가운데 미래형 건축물을 만들 구상을 혼자만 하게 되는 어리석은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분장 대상자(연기자)에 대한 작품 속 역할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연기자에게 그 사람의 연기로서의 개성을 최대한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의 작가와 연출자에게 연기자가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분장사 스스로가 생각한 극중 인물과 작가 혹은 연출자가 생각한 극중인물은 분명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견 교환 작업은 개인적 주관을 작품이라는 형태를 통한 작품 속 객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연출가와 충분한 대화로서 최종 분장 계획에 합의점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각 연기자의 성격, 주변, 환경, 건강등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분석 작업을 끝내야한다.⁴²⁾

1) 초상(肖像)의 창조

재창조할 사람이 역사 속 인물같은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역할에서의 얼굴과 연기할 연기자의 얼굴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과 같은 점을 찾지 말고, 먼저 얼굴의 형태, 길이 그리고 머리 색깔, 혼하지 않은 특징, 예를 들면 상처등을 먼저 보고 비슷한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고, 틀린 부분을 최대한 감춘다. 그리고 그 알려진 인물의 특징적 성격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을 강조할 계획을 세운다.⁴³⁾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면 연기자의 얼굴 특성을 파악한 후 강조할 부분, 변형할 부분, 숨길 부분을 나누어 분장 계획을 짠다. 그런 모든 작업의 준비가 끝났으면 분장작업계획표 작성에 들어가야 한다.

42) 강대영, 전계서, p.14.

43) 강경화, 『Fine Perfoming & Visual Arts에서 필요로 하는 성격분장에 관한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1998, p.57.

2) 극중인물 분석

배우의 얼굴을 보는 분장사의 눈은 여러 방향으로 시야가 넓어야 하며 장점보다 단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아주 예리한 눈의 훈련이 필요하다.

얼굴의 각 부분 사이를 균형있고 평준화 시켜주는 작업이야말로 분장에 있어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분장은 얼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얼굴을 역에 맞게 변형시키고 혹은 조화시켜 여러 형상을 만들어 미적 효과와 성격적 표현 배역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장사는 분장 작업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수과정은 바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즉 Character를 분석하는 일이다. 인물의 Character에 대한 정보는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인물이 지니는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환경조건 연령이나 인물의 특성(인상학적인 측면), 작품 속에서 다른 인물과의 갈등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외모에 따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⁴⁴⁾

인물 분석을 위한 외양적인 구성요소로는 유전적인 측면과 종족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기질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연령적인 측면이 있다.

유전적인 측면은 개인이 타고난 성격상의 특징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있으며, 종족적인 측면에는 서로 다른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이점, 환경적인 측면은 피부의 빛깔과 비부 상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질적인 측면은 개인의 인품, 성질, 개인적인 습관에 의한 개성의 표현이며, 건강적인 측면은 정상인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의 구분을 하며, 연령적인 측면은 나이라는 것이 신체적 상태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배역의 인물과 성격을 조사하는 것은 연기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분장에 있어서는 필수조건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시각화 할 수 있는 손의 기술도 필요하다. 분장에 의해서 인물이 재창조 되어지는 과정에서 인상학의 기본

44) 강경화, 『Fine Performing & Visual Arts에서 필요로 하는 성격분장에 관한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1998, p.57.

지식은 꼭 필요하다. 다양한 여러 인상들이 분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상학에 의한 인상을 보는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분장을 해야 할 연기와 인상학을 연관시켜 전체 분장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전체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을 보면 각 개인이 지닌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특유의 성질이나 건강면에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얼굴 혹은 신체의 어느 부위인가 반드시 하나의 형(刑)이나 기(氣)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극에 맞는 분장 배역을 설정할 경우 Character 에 맞는 인상을 찾아 면밀히 조사하여 사람마다 내면(內面)에 감추어져 있는 기보(記譜) 성격을 찾아 접목시키는데, 제일 먼저 인물이나 자세, 모습에서 그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형(刑)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체격이나 비척(肥瘠)의 육집⁴⁵⁾ 그리고 눈, 코, 귀, 입동이나 그 윤곽으로 보아 그 사람의 모습 중에 어디에 특징이 있는가, 혹은 어디에 결점이 있는가, 맨 먼저 눈에 띄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나 장단점 등을 배역에 일치하는 가를 살펴보고 그 Character에 가장 맞는 분장 계획을 세운다.

두번째로 활기(活氣)를 본다. 인간이 현재 살아 있는 동안 체내의 생명력은 계속 박동하게 하고 있다. 그 생명력의 힘이 하나의 기(氣)로 발출하여 그 기가 어떠한 형상(形相)을 이루어 다시 외면에 나타나는 상태가 곧 활기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면으로 나타날 때 신체에 활기가 있는 경우 더할나위 없이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의 Character를 설정할 때는 외관상으로 활기가 넘쳐 흐르는 사람으로 설정,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에 알맞게 분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관과 외적인 상이 허약하고 병자(病者) 같아 보이는 사람의 소유자를 건강미 넘치는 얼굴로 만들기란 체력적인 면에서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럴때는 특수분장을 이용하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이

45) 살이 찐 여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Character 설정후 전체적인 인상을 관찰한 후 배역에 알맞는 인상을 찾거나 인상학적 측면에 맞는 그 배역에 맞아떨어지는 인상을 가진 배역을 찾아 분장을 하게 되면 분장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또한 이러한 분장 효과는 정해진 인물이 연기함에 있어 의사전달 수단으로써도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상(人相)을 본다. 인상은 심성(心性)에서 비롯된다. 얼굴은 자신의 마음가짐의 변화에 따라서 변모해진다. 가령 성품이 신경질적인 사람은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며 매사 태평세월로 호인(好人)인 사람은 그 성질이 얼굴 표정에도 너그럽게 호인형(好人形)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별히 관상가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에게도 똑같은 안목으로 눈에 띄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⁶⁾

얼굴을 분석하는 형을 나타내는 얼굴의 형태에 의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상이 주는 느낌을 간파할 수 있다. 연기가 맡은 배역의 성격(性格)을 표현(表現)하고자 할 때 우선 배우 본래의 얼굴과 극본이 요구하는 인물의 얼굴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 연구하여, 연기자의 얼굴을 수정과 교정을 하여 배역의 성격적 사실들과 더욱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얼굴 형태의 변화를 주면서까지 캐릭터를 변화시키는 경우 특별한 장르에 의한 특수 분장을 제외하고 아주 드물다. 그에 비해 얼굴의 부분별 분장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배역 즉 연기자의 성격과 분위기를 파악이 끝난 후에는 다음 연출자 및 각 스텝 즉 의상·장신구·소품·조명·카메라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분장 계획표 작성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⁴⁷⁾

46) 장미화, 노효경, 『분장과 인상학에 관한 상호 연관성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2000, pp.102~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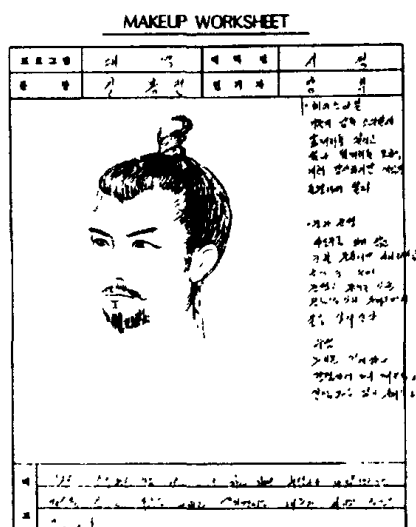
47) 강경화, 전게서, pp.57~58.

3) 분장계획서

분장 계획서에는 등장 인물의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 및 색깔, 얼굴 형태, 육체, 등장 인물의 환경, 인품, 성질, 습관, 등이 포함된 기질, 혈색, 얼굴의 수척함, 피부 표현으로 병색, 등장인물의 환경, 건강, 나이 시대에 따른 머리 스타일 및 수염 형태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표시한다.

분장 계획서에 대한 중요성을 외면하는 경향은 분장의 혼란과 실패를 가져온다. 분장사가 분장의 방향에 대해 연출자, 연기자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분장 작업 계획표마저 작성하지 않은 채 분장을 완결할 경우, 그 분장은 연출 의도 및 연기자의 연기 패턴에 부합되지 못해 결국 분장을 다시 하게 된다. 그로 인해 작품의 제작 차질은 물론 연기자 연출자와의 마찰과 신뢰 상실을 초래하여 분장사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분장인의 경험과 경력이 부족할수록 많이 발생하며 경험



과 경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작업 계획표 없이는 창조적인 분장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완벽한 분장 작업 계획표는 경험과 경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분장인들에게 훌륭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와 연기자나 연출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분장 부분이라 할지라도 계획표에 기록하고 디자인하여 정리해 나간다면 훌륭한 분장이 완성되리라 본다.⁴⁸⁾

<그림 11> 분장계획서⁴⁹⁾

48) 강대영, 전제서, p.16

49) 김봉천, “한국 드라마의 성격 분석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제2절 TV드라마 《야인시대》 등장인물 유형별 이미지 분석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의 대상으로 현재의 방영중인 드라마이며 시청자들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은 SBS TV 특별 기획 드라마 《야인시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야인시대》는 51.8%로 최고시청률 경신을 하였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미디어코리아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소 40%대 초반의 시청률을 기록해 온 《야인시대》는 9일 48.5%를 기록해 2002년 방송한 모든 프로그램의 일별 시청률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지난 2월 24일 “방송된 KBS 《태조왕건》의 46.6%였다.”⁵⁰⁾ 높은 시청률로 인한 소구대상(시청자)의 반응이 성공적인 드라마라고 평가한다면, 높은 시청률은 대중의 호응이라는 측면에서 검증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1> 2003.5월26일~6월1일간동안에 방송된 프로그램 순위 10위.⁵¹⁾

순위	프 로 그 램	방송국	시청률
1	일일연속극 《인어아가씨》	MBC	33.8%
2	대하드라마 《야인시대》	SBS	28.3%
3	《부부클리닉》	KBS2	22.2%
4	주말연속극 《저푸른초원위에》	KBS2	22.0%
5	일일연속극 《노란손수건》	KBS1	20.0%
6	《무인시대》	KBS1	19.6%
7	《남자의 향기》	MBC	17.8%
8	《장희빈》	KBS2	17.7%
9	《아내》	KBS2	17.3%
10	《드라마시티》	KBS2	15.7%

50) [연합뉴스] 2002년 12월 10일

51) TNS 미디어, 전국순위의 경우 전국으로 동시에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방송된 지역만의 시청률로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순위가 동등하게 된 프로그램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값을 계산하여 순위를 정함. 전국은 1,200가구, 서울경기인천은 700가구를 표본으로 한 가구시청률. goodday신문 2003년6월5일자

1. TV 드라마 《야인시대》 기획의도 및 제작방향

TV 프로그램 제작시 방송정책 방향을 정하고 방송 제작 실무자인 제작자, 연출자로부터 제안 받은 프로그램 기획안을 바탕으로 시청률, 각종 비평, 시청자 반응, 사내 자체 심의 평가등의 참고자료와 외국의 최신 방송 동향을 수집해서 국제화 동향과 병행하고, 국민생활 시간조사⁵²⁾, 문화의식조사⁵³⁾ 시청양태조사⁵⁴⁾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기획, 제작방안은 방송프로그램의 주제, 구성, 표현 방법등이 포함되어 있어 작품전체의 형태, 규모, 시대, 등장인물을 알 수 있다. 다음은 TV 드라마 《야인시대》 기획의도 및 제작 방향이다.

1) 기획의도

“우리 근대사에 있어 김두한⁵⁵⁾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잘 알려진 야인의 대명사이다. 혹자는 그를 협객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건달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 나라 역사가 낳은 비운의 인물이며 희생자다. 그가 만약 독립군

52) 언제 어떠한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는 가를 알아보는 조사, SBS 방송아카데미, 전게서.

53) 시청자들은 어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조사, 상게서.

54) 지난 6개월 동안 방송된 내용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졌는가를 측정하는 조사, 상게서.

55) 호 의송(義松). 서울 출생. 3·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독립운동가 김좌진(金佐鎭)의 아들이다. 서울 교동국민학교를 마치고 협객으로 활동하면서 주먹왕으로 군림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주먹의 힘으로 민족적·의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광복 후 한독당(韓獨黨) 재정위원·대한민주청년연맹 부위원장·대한노조총연합회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반탁운동과 노동운동에 종사하였다. 1954년 3대 민의원으로서 정계에 진출하고, 1965년 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선거소송, 한독당 내란음모사건 및 국회발언대에서 정일권(丁一權) 총리와 장기영(張基榮) 부총리 등에게 미리 준비한 오물을 투척한, 이른바 국회오물투척사건 등 독특한 정치생활을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1972년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날까지 그의 이름이 회자 되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수난의 역사에 의하여 버려졌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거친 황야에서 싸웠던 것이다. 그의 방법은 거칠었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어둠과 암흑의 세계에 있었지만 그의 궁극적 인생은 늘 그의 아버지와 같고자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김두한의 주먹신화를 줄기로 하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김두한의 삶은 항상 당대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지점에 놓여 있었다. 그는 독립군 총사령관의 아들로써 일제시대에 살았고, 좌우익의 극한 대립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독재 대(對) 민주의 치열한 정치투쟁의 현장에 속해 있었다. 이 드라마는 김두한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으로 살아 숨쉬는 ‘인간 김두한’을 그려 낼 것이며, 그가 살았던 시대의 진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는 통사의 그물망에서 빠져 나간 이면의 역사라 하겠다.”⁵⁶⁾

2) TV 드라마 《야인시대》 제작방향

① 어른들을 위한 동화- 선 굵은 남성드라마를 지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풍운아들의 이야기를 김두한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아픔을 그려낸다. 한낱 주먹 패거리로 불과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사나이다움은 시청자들에게 대리 경험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준 것이며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왜소해진 남성들의 잃어버린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남성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밑바닥 인생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그려냄으로써 기존 안방 드라마의 협소한 틀을 깨고 선이 굵은 남성 드라마의 요소를 통해 시청자들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는 새로운 드라마를 창출한다.

56) <http://wizard.sbs.co.kr>

②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를 추구

등장인물들의 뚜렷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 극의 재미를 집중시키고 보편적 휴먼 드라마의 바탕 위에 드라마 곳곳에 설정된 극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보여줌으로써 남성 드라마의 통속적인 선입견을 파괴한다.

③ ‘폭력성’을 경계하며 당당한 ‘주먹세계’의 표현

현대 사회의 조직폭력배들은 의리와 명분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를 위해 인간을 살상한다. 여기에 ‘폭력’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고전적 ‘주먹세계’의 질서는 ‘명예’와 ‘공개성’을 내세운다. 그것은 사나이다운 당당함이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명분 없이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겁함과 술수의 더러운 싸움을 용납하지 않았다. 액션적 요소를 최대한 다양하고 박진감 있게 살리지만 단순한 흥미거리의 액션을 배경하고 나약해지기만 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당당하고 공개적인 사나이들의 승부를 보여주고자 한다.

④ 화제성을 극대화하며 기존의 딱딱한 ‘정치 시대물’을 지향

지금까지의 정치 시대물들은 대부분 권력의 중심에 속하는 주류들의 이야기를 객관적 스타일로 다뤘다. 그러나 본 드라마에서는 김두한이라는 야인적 인물을 중심 스토리 축으로 삼고, 정치가 등 사회 주류적 인물을 드라마 전개의 배경으로 운용하여 대중적인 유연성을 확보한다.

⑤ 일상생활 속에 드러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부각

과장되고 의도적인 ‘민족의식’의 부각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보여지는 ‘민족의식’을 통하여 피부로 느껴지는 ‘민족’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한다. 말하자면 김구 선생을 통해 느껴지는 위대한 민족의식에의 접근과는 달리 쪽발이와 잠을 잤다는 소문에 여급들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싸움을 벌이고 조선 학생이 일본 학생에게 맞았다고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 싸움을

별이는, 그런 소박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민족의식 말이다. 단순하지만 공동운명체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네 순박한 민족정서를 보여줌으로써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민족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⑥ 뚜렷하고 집중적인 드라마를 추구

강한 개성의 매력적인 주변 인물과 풍부한 이야기를 통해 드라마 재미를 강화하고 분산적인 스토리와 에피소드를 보강하여 빠른 템포의 단순하면서도 집중적인 드라마를 추구한다.

⑦ 멜로성을 강화

김두한은 물론 주요 등장 인물들이 애정 관계를 현대적 감각의 멜로성으로 충분히 살려내 남성 드라마의 정형성을 탈피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폭 넓은 시청자층을 겨냥한다.

⑧ 시대상의 구체적인 형상화

주요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삶과 생활의 형태 이외에도 종로 상가와 야시장, 수표교 주변의 일상 등을 통해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한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는 효과를 노린다.

⑨ 코믹적인 요소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경직성 속에 보여지는 웃음들, 예를 들면 김두한의 수포교 시절, 가짜 김두한의 등장 등등을 이용하여 드라마의 건조함을 차단하고 긴박감이 풀어지는 요소요소에 코믹한 부분을 삽입하여 극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⁵⁷⁾

TV 드라마 《야인시대》의 기획의도 및 제작방향에서 보여지듯 이 드라마는 하나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여, 장르 특징에 의한 성격 분장의 사례와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일반적으로 추구해오던 닳은 꼴의 캐스팅을 과감히

57) <http://wizard.sbs.co.kr>

탈피해, 고층에 의한 인물분석으로 모사된 분장 사례를 포함하여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유형별 이미지 특성을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실존 인물이었던 여러 등장인물을 유년 시대부터 장년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 연기자에 의해서 나누어 표현되어 성격분장의 다각적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TV 드라마 작품제작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배역(casting)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각 등장인물이 성격분장으로 인하여 ‘연기자가 작품 속 인물로 표현되는 다양한 형태’를 연구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성격분장된 등장인물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를 통해서 인상학적 요소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어떻게 응용 되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등장인물의 유형별 이미지 분석

작품의 배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여러 환경 변수로 인하여, 배역선정(casting)의 탄력적인 운용이 보편화된 지금, 그에 맞는 성격분장의 필요성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배역선정으로 인해 표현되는 등장인물의 성격분장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정형화창조 분장 : 기존의 정형화된 분장에서 탈피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된 정형화 분장 유형
- 2) 초상창조 분장 : 역사적 인물과 완전히 닮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부분의 특징적인 모습을 강조해서 그 인물로 표현되게 만드는 모사분장 유형
- 3) 성격(character)창조 분장 : 작품의 극적 구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오직 극적인 상황에 맞추어 표현되어지는 성격분장 유형
- 4) 이미지창조 분장 : 기획 의도에 따라 흥행이나 시청률을 목적으로 관객이나

시청자가 좋아할 만 한 인물을 캐스팅해서, 실제 인물과 이미지(人相)마저도 다르지만 호감도에 기인하여 대중적이고 인지도 있는 스타를 캐스팅해서 작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는 분장 유형

(1) 정형화 창조 유형

영화 <나바론의 요새 (The Guns of Navarone)>에서 그레고리 펙과 그의 친구들은 결국 독일인에게 잡혀서, 고문관에게 모진 문초를 당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장교 한 사람이 들어선다. 감독은 그 인물을 클로즈 업으로 잡았는데, 광대뼈가 있고 백발에 가까운 금발에 ‘전형적인’ 게르만 민족의 후예였다. 대사나 장면 설명, 다른 어떤 묘사도 필요가 없었다. 그의 얼굴만 보아도 이미 나치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배우는, 외모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면 설정이나 동기 같은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 스크린의 세계에서는, 가장 부족하고 귀중한 것이 시간이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시간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얘기해나가는 시간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바로 타입 캐스팅⁵⁸⁾이다.⁵⁹⁾ 이 타입 캐스팅은 곧 정형성(定型性)에 근거하여 배역을 결정하는 일이며, 정형화 유형의 분장이란 기존의 작품들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졌던 유형의 분장으로 일반인들에 보편화된 이미지의 분장방법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정형화 유형의 응용분장의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 Typecasting: 연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관객에게 그 외모나 개성의 일반적 인상이 상투적인 인물을 채용하는 것. 이승구 外, 전게서, pp. 441-442.

59) 패트릭 터커, 방은진 옮김, 『스크린 연기의 비밀』, 서울 : 시공사, 1999, pp.113~ 114.

① 바보분장의 경우

성격분장은 멋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작품 속에 설정된 각 인물들의 직업, 연령, 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노인이나 실업자, 흑인, 백인, 또는 바보, 유령, .도사, 신선, 거지, 간신등의 배역은 작품이 요구하는 인물의 성격을 살려 상황에 맞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로 창출하여야 한다. 바보분장도 각각의 환경에 따라 극본에 맞는 캐릭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리석거나 미련한 이미지 또는 순수한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캐릭터로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거지분장 또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코믹, 사극, 현대극의 작품에 따른 바보분장의 예이다.



<그림 12> 코믹 바보역



<그림 13> 사극 바보역



<그림 14> 바보역

<표 12> 바보 분장의 분장론적 측면

	분장론적 측면	인상학적 이미지 응용
바 보 분 장	대부분의 바보분장의 정형적인 방법으로는 본인의 얼굴형에 맞춰 윤곽과 골격을 조절하여 얼굴의 좌우균형을 비대칭으로 만들며 미간이 넓고 눈썹은 팔자모양으로 눈꼬리,입등 전체적으로 쳐져보이고 비뚤어져 보이게 표현함. 또한 콧등은 낮아 보이고 퍼지게 새당을 하고 이마와 인중은 하이라이트를 주어 돌출되게 표현함. 입술라인도 비뚤어지거나 과장되게 그리고 작은 점을 부분적으로 표현하여 코믹적인 요소로도 표현하기도 함.	이미지는 눈썹과 눈썹 사이의 넓은 간격과 아래로 심하게 처진 팔자 눈썹형. 인상학에서 넓은 미간과 팔자 눈썹(쳐진 눈썹)의 특징을 보면 성격이 치밀하지 못하고 집착력이 부족, 활동적이지 못하여 일정한 거처가 없는 고독할 상. 낮은 코는 자존심이 약하고 자신이 없고 소심한 상.

거지의 성격 분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더럽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거지 또한 바보분장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내포되어있다. 인상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이미지로 표현되어지며 작품의 인물의 개성에 맞는 부분적 특징이 주어진다.

거지분장도 바보분장의 특징을 내포하며 눈썹이 흐리고 처진 것은 어리숙하거나 모자라 보이는 약간의 낭비벽이 있고 생활에 구애받지 않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는 고독한 상으로 《야인시대》의 등장인물중 거지 왕눈이의 분장을 살펴보면 베이스는 다크 브라운 쪽으로 썼고 약간의 블랙을 써주기도 하여 지저분한 피부를 표현하였다. 눈썹은 본인 것보다 조금 흐리고 처지게 함으로서 모자라고 착한 이미지로 표현했으며, 머리는 감지 않고 헝클어진 가발을 사용하였다. 의상도 분장의 지저분한 이미지와 같이 더러운 것을 착용하였으며 손톱은 때깎은 것 같은 표현을 하여 거지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영상분장에서는 넓은 의미의 분장으로서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개념으로 거지분장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5> 왕눈이역
SBS야인시대



<그림 16> 거지촌아이역
SBS야인시대

② 기생분장의 경우

시대별로 구분되는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가 고전이나 시대극으로 분류되는 작업에 임하게 될 때 철저한 고증에 의해 그 시대에 맞는 사실감 있는 분장을 표현해야 한다. 통상 조선시대 이전을 사극(고전극)이라 말하며 여러 계급이나 신

분에 따라 분장, 미용, 의상, 소품등 철저한 구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이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성격배우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기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3> 기생분장의 분장론적 측면⁶⁰⁾

	분장론적 측면	인상학적 이미지 응용
기생 분장	일반적으로 쪽머리에 눈과 입술 화장을 강조하여 매력적인 눈매, 크고 가득한 관능적인 입, 천박함을 강조하는 매력점. 창백한 기초 화장, 푸른색 새도우, 아이라인은 바깥 구석까지 확장 시켜 매력을 더한다. 입술은 Red로 가득 차게, 안와 지역에 깊어 보이는 선을 긋듯이 새도우 한다.” ⁵⁹⁾	크고 가득한 붉은 입술은 시원시원해 보이며 활동적이지만 생활력이 지나친 나머지 가정에 침거할 상은 아님. 또한 활동적이며 극성스러워 실패가 많을 상. 입술에 사마귀가 또는 점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허덕이며 술을 잘마시고 담배를 잘 피움. 입술이 붉고 이가 희면 신변 잡기에 능할 상



<그림 17> 기생역
KBS장희빈



<그림 18> 소월향역
SBS 여인천하



<그림 19> 옥매향역
SBS 여인천하

《야인시대》에서의 기생(설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생은 쪽머리에 입술은 빨갛고 얼굴은 희게 하고 눈썹은 정갈된 이미지를 주목적으로 한다. 극 중 인물의 설향은 성격상 곧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다. 기생이라고 하지만 곧은

60) 김성희, 전개 논문, p.69 참조

성격이라 자기가 맘에 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하고도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인물로 한남자만 바라보며 정조를 지키는 성격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기생 설향은 전형적이고 천박한 기생이 아닌 표현으로 립스틱을 연한 색으로 칠하였다.



<그림 20> 설향역



<그림 21> 설향과 애란역



<그림 22> 명월관 기생역

③ 장수, 무관분장 경우

시대극이나 사극에서 연령, 환경, 직업, 계급등에 따라 수염의 길이나 색깔이 구분된다. 길이는 성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성격을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형으로 무인 계급의 경우 눈썹이 치솟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눈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무슨 일이나 자신만만하며 대담성이 있어 간혹 기적을 창출해 내기도 하며, 성질이 날카로워 위압감을 준다. 수염의 양이 많고 넓으면 강한 의지를 내포하여 왕이나 장수의 상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림 23> 이고역
KBS무인시대



<그림 24> 이의민역
KBS무인시대



<그림 25> 이의방역
KBS무인시대

<표 14> 장수, 무관 분장의 분장론적 측면

	분장론적 측면	인상학적 이미지 응용
장수 무관 분장	무식하며 야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베이스는 어둡고 거칠은 듯한 붉은기 가미하며 눈썹은 술이 많고 눈썹꼬리를 위로 과감하게 올려줌. 눈썹과 눈의 라인, 수염의 조화를 이뤄 날카롭게 위압감을 준 이미지로 연출, 수염의 양은 많으나 길지 않게 표현함.	눈썹 털이 거칠고 술이 많고 짙으며 눈에 높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모양새로 권(權)을 누릴 상. 사자의 눈썹이라고 하는데 얼굴모양마저 사자와 같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림. 눈꼬리가 올라가면 양의 기질로 성품이 강하고 성급하나 솔직하여 무인의 기질이 타고난 장수의 상.

《야인시대》에서의 무인의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인상학적으로 분석시, 대표적으로 김좌진 장군과 그 외 독립 운동가등으로 볼 수 있다. 강하고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와 항상 입을 힘차게 다물고 있는 위, 아랫 입술이 맞닿은 자국이 한일자로 되어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남자다운 성격으로서 오로지 일에 열중하는 상이다. 일반적으로 정형성과 실재 모습을 응용한 분장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6> 나석주역



<그림 27> 김좌진역

④ 악역 분장의 경우

악역 분장의 대명사인 춘향전의 변사또 분장은 대표적인 예이다. 실존인물이 아닌 가상인물로 표현의 성격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분장으로 인상학적인 측면을 참조해서 창출하고 있다.



<그림 28> 1988년
변사또역



<그림 29> 1996
변사또역

<표 15> 악역분장의 분장론적 측면

	분장론적 측면	인상학적 이미지 응용
악 인 역	사악하고 악마처럼 보일수 있는 성격 분장, 길고 뾰족하며 수직선 새도우를 많이 사용하고, 길고 얇은 코, 위쪽으로 말아 올린 눈썹, 움푹 패인 눈과 어둡게 조여진 입, 특히 구석쪽으로 돌려진 간악한 입의 표현으로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 창출	검봉(劍鋒)코상으로 육친의 덕이 없고 자손을 극하며, 성품이 궤계 ¹⁾ 에 능하며, 성질이 흉포하며, 일신이 고독하고 운세가 불안정하여 빈궁함이 많음. 빼뜯어진 입술과 돌출된 인중은 아주 흉악한 일을 당하는 상. 수염사이가 넓고 술이 많음은 강한 성욕을 나타내고 콧수염 끝이 올라가면 포악한 상



<그림 30> 일본형사 미와역



<그림 31> 일본형사역

위의 악역분장의 응용으로 《야인시대》 등장인물에서 살펴보면 일본고등계경부인 미와 같은 극중 일본 형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역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일단 날카로우면서 마르고 눈빛이 매서운 느낌으로 자체가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얼굴을 찾아 그 이미지 부각만을 위한 분장을 하게 되는 데, 인상학을 응용해 분장을 하게된다면 얼굴은 역삼각형에 눈은 도화눈형에 가깝게, 눈꼬리의 주름을 부각시키면서 눈 부위에 점이나 사마귀를 첨가시킨다. 눈썹은 엉긴 눈썹의 형태나 도깨비 눈썹 형태로 변형을 주고, 코는 원숭이코의 변형, 개코, 검봉코, 노루코의 형태에 알맞게 분장을 하고 입은 돼지 입형을 기본으로 양(羊) 입형처럼 입술을 얇고 뾰족하게 강조하며, 입 부위에 수염을 없앤다. 턱선은 모가 난 형태를 강조하면 분장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기타 다른 분장의 예를 살펴보면 스님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배우가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머리 모자를 이용한 분장으로 표현한다. 또한 눈썹을 여리게 표현하여 인자함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의 스님 역의 분장을 보면 한용운역(유형관분)은 머리를 자르게 하여 스타일을 잡았고, 본래는 짙은 눈썹이지만 눈썹을 여리게 하여 인자함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님 분장의 유형으로 표현하였다. 나이가 있어서 눈 밑 주름을 약하게 그려주었으며, 한용운이 생을 마감할 때쯤에는 완전 노역분장으로 나이든 사람으로 머리에 흰 칠을 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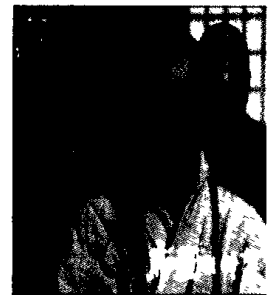
<그림 32>
한용운
실제



<그림 33>
한용운역
(장년)



<그림 34>
한용운역
(노년)



<그림 35>
스님역
KBS제국의 아침

TV 드라마에서의 성격분장(Character Make-up)은 등장인물, 즉 배역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표현의 작업으로 시대 상황이나 인물의 개성이나 특징을 분장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어 최상의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 중의 인물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존과 인상학적면을 접목시켜 창출하므로써 극 중 캐릭터에 맞는 인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어느 한 대표되는 인물, 즉 정형화된 인물을 표현할 때 분장사가 인상학을 인지하고 있다면, 기존의 분장 방법과 인상학이 만나 응용·변형·발전이 가능해 창조적인 분장을 해낼 수 있다.

모든 작품들이 장르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데, 각 작품 속에 정형화된 캐릭터의 분장이 천편일률적이라면 작품은 물론이고 분장사 역시도 빛을 발하기 힘들다. 이런 인상학들을 분장사가 숙지하고 있다면 작품을 분석하고 그 작품의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데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분장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초상(模寫)창조 유형

실존인물에 근거한 초상(肖像)분장일 경우 시대극에 등장하는 잘 알려진 인물을 드라마화(化) 할 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는 거의 고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닮은 사람을 캐스팅해서 교정 분장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럴 때는 교정분장이 필요하며 기술(奇術)한 것처럼 특정부분을 부각시키는 분장방법이 요구된다

① 이승만 분장의 경우

이승만⁶¹⁾은 1919년 3·1운동 후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漢城)임시정부와 상하이

61) 이승만(李承晩;1875-1965) 독립운동가. 정치가.본관 전주(全州). 호 우남(霧南). 초명 승룡(承龍). 황해 평산(平山) 출생.

(上海)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에서 각각 최고책임자인 집정관 총재(執政官總裁)와 국무총리(國務總理)로 추대되자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되어 스스로 대통령으로 행세, 점차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무투표 당선, 이어 국회의장에 피선되어,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제정·공포하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 그 해 8월 15일 취임하였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국내의 공산주의운동을 분쇄하였으며, 철저한 배일(排日)정책으로 일본에 대하여 강경 자세를 견지하였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공산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세력이 우세한 국회에서 자신의 대통령재선이 어렵게 되자, 자유당(自由黨)을 창당하고 계엄령을 선포, 반대파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변칙적 방법을 동원하여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直選制)로 개정하고 대통령에 재당선되었다. 또한 1954년 자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종신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 국회에서 1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는데, 사사오입(四捨五入)의 해석논리를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번복, 통과시킴으로써 1956년 대통령에 3선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여당과 정부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대통령에 4선되었으나 4·19 혁명으로 사임, 하와이에 망명해 있는 동안 사망하였다.⁶²⁾

이승만의 실제 인물 사진에 근거한 인상학적 이미지는 사각 얼굴형으로 넓찍하여 머리가 백발이며 눈은 봉안으로 총명하고 높은 지위에 서게 될 상이며, 하관 또한 둥글고 넉넉하며 콧날이 곧고 인중이 곧아 강직하고 공명을 얻게 된다. 이마가 둥글고 넓고 평탄하여 권력이 따를 상이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의 이승만(권성덕 분) 분장을 살펴보면 거의 흡사하나 얼굴의 형상은 이승만보다 둥근 편이다. 그래서 볼 쪽에 세딩으로 처리해서

62) 두산대백과사전·

각을 지게 했으며 머리는 흰색 도란으로 칠하여 옆 가르마를 타게 했다. 눈두덩이는 세딩으로 음영을 주어 분장을 하여 거의 흡사한 모사발상이라 하겠다.



<그림 36> 이승만 실제



<그림 37> 이승만역

② 김구 분장의 경우

김구⁶²⁾는 일본인에게 시해당한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군 중위 쓰치다(土田壤亮)를 살해하고 체포되어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종의 특사로 감형되었다. 복역 중 1898년 탈옥하여 공주 마곡사(麻谷寺)의 승려가 되었다가 이듬해 환속(還俗), 1903년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3·1운동 후 상하이[上海]로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참여,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에 선임되었다. 8·15광복때 귀국하여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대한독립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의원 부의장, 민족통일총본부를 이승만(李承晩)·김규식(金奎植)과 함께 이끌면서 극우파로 활약하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에 반대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창하였다. 그 후 북한으로 들어가 정치회담을 열었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정부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중간파의 거두로 있다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京橋莊)에서 육군 포

62) 김구(金九:1876-1949) 독립운동가. 본관 안동. 호 백범(白凡). 아명 창암(昌岩). 본명 창수(昌洙). 개명하여 구(龜,九). 법명 원종(圓宗). 초호 연하(蓮下). 황해도 해주 출생

병 소위 안두희(安斗熙)에게 암살당하였다.⁶⁴⁾

김구의 실제 인물 사진에 근거한 인상학적 이미지는 이마와 턱이 좁고 뾰족한 반면에 얼굴 전체 중 광대뼈가 차지하는 부위가 발달된 마름모 얼굴형이다. 이마가 넓어 총명하고 큰 관골로서 의지력이 강하고 뜻과 이상이 높다. 머리색깔은 짙으며 상고머리로 옆 가르마를 했으며 둥근 검은 테 안경을 착용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의 김구(이영후 분) 분장도 역시 전체적인 형상이 흡사하여 머리색과 머리 스타일, 그리고 둥근 검은 안경테를 종합적으로 해서 연출을 하였다. 광대뼈에는 하이라이트로 처리하여 돌출되게 표현을 했으며, 턱선은 세딩으로 해서 뾰족하게 처리를 하였다.



<그림 38> 김구 실제



<그림 39> 김구역

③ 박헌영 분장의 경우

박헌영⁶⁵⁾은 1921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입당하고 레닌대에서 수학했다. 일제하 국내 공산당 조직 결성에 나섰다가 두 차례, 8년여 투옥됐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39년부터 김삼룡·이주하 등과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나섰고, 46년 남로당을 창당해 초대 부위원장을 맡았으나 같은 해 미군정 당국의 지명수배로 북한으로 도피했다. 50년 남북 노동당이 합친 조

64) 두산대백과

65) 박헌영(朴憲永:1900-1955) 공산주의 운동가. 본관 영해(寧海). 충남 예산(禮山) 출생.

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됐으나 53년 남로당 숙청작업으로 체포돼 55년 미제국주의 고용간첩의 죄목으로 사형됐다.⁶⁶⁾

박헌영의 실제 인물 사진에 근거한 인상학적 이미지는 둥근 원자형 얼굴로 유혹에 약한 편이며, 성품이 원만, 명량, 낙천적, 정력적이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일에 추진력이 강하다. 앞으로 일어나는 귀는 중말년에 외롭게 살다가 죽을 상이다. 미간이 좁고 눈썹머리는 뽕족하고 눈썹꼬리는 희미하여 성격이 과격, 탐험스러운 이미지이다. 코는 볼이 풍부하며 입은 곧게 뻗었고 하관이 단단한 상이다.



<그림 40> 박헌영 실제



<그림 41> 박헌영역

드라마 《야인시대》에서의 박헌영(임병기 분) 분장을 살펴보면 윗입술 라인은 살리고 입술 양끝을 넘지 않는 콧수염과 둥근 철테 안경으로 설정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곱슬머리 형태의 가르마 없이 옆으로 빗어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여 실존의 이미지를 거의 흡사하게 표현했다.

기타 다른 작품의 인물의 예로는 김구역의 김진태, 박정희역의 이창완, 대원군역의 임동진등도 초상분장에 포함된다.

66) 두산대백과



<그림 42> 박정희역
MBC 제4공화국



<그림 43> 김구역
KBS독립문



<그림 44> 대원군역
MBC대원군

(3) 성격(character) 창조 유형

TV 드라마 《야인시대》와 같은 다큐멘터리 드라마에서 많이 나타나는 배역 선정(casting)에 따른 성격분장의 한 유형이다. 작품의 극적 상황에 맞는 성격 창조 유형의 분장으로 드라마의 극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을 다르게 표현할 때와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을 새롭게 창조해 내어 이야기의 극적 구조를 강화시켜 작품의 재미적 요소를 높이는 분장의 유형이다. 다음은 드라마 《야인시대》에서의 실존인물이 아닌 창조된 인물로 극중 캐릭터에 맞게 분장한 예이다.

① 오무라(김성수분; 30세 가량) : 미와의 부하 형사

전형적인 일제시대의 야비한 성격을 지닌 일본인 형사. 짧은 머리와 앞쪽은 가늘고 뒤쪽은 넓게 한 빗자루 눈썹형의 변형으로 야비함을 표현하였고, 일제시대의 일본형사의 상징인 콧수염을 제외한 나머지 안면을 깨끗하게 분장함으로써 까다로운 성격과 작은 일에도 만족하는 소심한 성격을 극대화 시켰다.

② 문달영(양형호분; 35세 가량) : 미와의 부하 형사

악질 조선인 형사로 줏대가 없고 쉽게 흔들리며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길고 짧은 눈썹형으로 빈궁하기 쉽고 부모 형제덕이 적으며, 대인관계가 서투른 인상

이다. 이는 비밀이 많으며 음흉하고 잔인하고 간사한 그러면서도 마음이 약한 양눈형의 인상으로 표현하여 분장 효과를 더 했다. 일반적으로 머리 가위로 벗겨지고 코와 광대뼈가 나와 있는 사람은 매우 손빠른 수완가의 상이다. 돈이라면 어떻게든 모으는 인물의 전형이다.

③ 김태서(김로진분;30세 가량): 악질 조선인 형사.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인물로 머리는 모두 뒤로 넘긴 머리로 금방 흥분하고 격하기 쉬우면서 또 바로 식는 감정의 인물이다. 둥근 형 이마를 부각시키고 어리석고 졸렬한 이미지의 물고기는 형으로 턱에는 수염을 분장하여서 무식하면서도 암체스러운 분위기를 창출했다.



<그림 45> 오무라역



<그림 46> 문달영역



<그림 47> 김태서역

위에서 살펴 본 세 사람의 인물은 실존인물은 아니지만 극중 상황에 맞게 창조된 인물의 대표적인 예이다. 오무라, 문달영, 김형사, 3인의 머리모양과 수염을 달리하여 조화를 이루게 표현하였고, 그 외 원노인, 최동렬, 쌍칼 등 요소요소에 극중 배역을 창조하여 강한 개성의 매력적인 주변 인물을 통해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더 살렸다.

다음은 드라마의 극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을 다르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실존 인물의 인상에 의거하지 않은 재창조 이미지 유형의 예이다.

④ 이정재(김영호분;30~50세): 씨름 장사 8연패의 장본인. 한국 암흑계의 대부.

이천 출신의 씨름선수 이정재는 일제 시대 당시 주먹 황제인 김두한의 부하로서 뛰어난 머리와 학식으로 총애를 받았다. 한때 김두한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여 의제라고 여겨질 정도였지만 50년대 접어들며 이정재는 점차 정치적 야심과 주먹 지존의 야심을 품고 동대문 사단을 형성하고 이승만 정권아래 이른바 유지광, 임화수등과 결탁, 의형제를 맺는다. 당시 해방이후 조직은 명동의 이화룡, 시라소니 이성순, 김두한 그리고 이정재등이었는데 그무렵 근 20년간 절대 왕권을 구축했던 김두한은 사실상 은퇴를 하고 정치계에 입문 국회의원 되었다. 그 무렵 이정재는 부하들을 시켜 도끼와 여러 무기를 사용 맨 몸으로 찾아온 시라소니를 급습한다. 이후 김두한 다음 시대 즉 50년대 제일 주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런 비겁하고 야비한 짓을 일삼던 이정재는 당시 자유당 이기붕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 주먹으로 각인된다. 막강한 정권의 비호아래 이승만 정권의 보디가드 노릇에 열중한 이정재는 정치계에 욕심을 품었지만 60년 4.19와 함께 신군사 정부에 의해 처형된다.⁶⁷⁾

실제 이정재는 키가 몹시 작고 체구가 다부진 편인데, 극중에서의 인물은 키가 크고 체격이 있으며 마른 얼굴형의 인물을 창조해 냈다. 이정재역의 김영호는 “뒤로 모두 넘기는 머리 스타일은 연기자 본인 얼굴과 어울리지 않기에 내린 머리로 연출을 하여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⁶⁸⁾



<그림 48> 이정재
실제



<그림 49> 이정재역
청년



<그림 50> 이정재역
중·장년

67) <http://wizard.sbs.co.kr/>

68) 이무삼, SBS 드라마 《야인 시대》 분장사 인터뷰

찬스에 민감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의 폭이 좁고 뽀족한 턱의 형을 강조하고, 날카로운 눈을 강조하여 잔인하고 변질하기 쉬운 이미지를 창조해 극중 주인공인 김두한의 행동반경에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⑤ 하야시(이창훈분: 30-50세): 일본 야쿠자의 조선책임자. 조선이름 선우영빈
도오야마 미즈로(두산만)의 직계부하로 실제 하야시의 인상은 강해 보이지 않는 둥근 얼굴형이지만 극중에서는 강한 느낌을 주는 분장을 하였다. 질게 끝을 올리는 눈썹형과 눈매를 날카롭게 꼬리 올려주어 용맹한 기상을 나타내어 극중에서 조선인들에게 위협적인 인물로 보여지게 했다.



<그림 51> 하야시
실제



<그림 52> 하야시역
장군의 아들



<그림 53> 하야시역
야인시대

⑥ 시라소니 (이성순분; 30~50세): 독불장군의 전설주먹.

일제시대 북만주 일대를 주름잡던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 주먹이다. 싸움기술에 있어 주먹사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았으며 해방직후 귀국하였다.

명동파의 식객노릇을 하다가 김두한과 의형제를 맺고, 1.4후퇴이후 부산에서 위기에 놓인 이정재를 구해주지만 훗날 이정재의 동대문패에게 집단린치를 당한다. 실제사진은 어린시절의 모습만 있어 드라마상의 인물과 비교할 수 없지만, 실제 시라소니의 인상은 체격도 왜소하고 날렵한 이미지와는 다른 생김새도 싸움꾼답지 않는 외모의 못생긴 얼굴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극중에서 시라소니



<그림 54> 시라소니역

(이성순분)는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머리 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매로 강인한 이미지로 연출하여 극 중 이미지에 맞게 창조하였다.⁶⁹⁾

또 다른 작품의 예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홍선 대원군⁷⁰⁾의 경우를 보면 실제이미지는 작은 체구와 다소

유(柔)해 보이는 외모이지만 대원군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작품의 의도에 따라 캐릭터가 변한다. 예를 들어 그가 안동김씨의 감시를 피해 파락호 궁도령으로 생활을 할 때를 집중 조명한 드라마와 그가 집권을 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을 하며 외세, 민비등 상대 세력과 맞설 때의 이미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홍선 대원군의 역은 작품에 따라 다양한 캐릭터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예이다.



<그림 55> 대원군
실제



<그림 56> 대원군역
KBS 명성황후

69) <http://sirasony.co.kr>

70) 이름 이하응(李崑應). 자 시백(時伯). 호 석파(石坡). 시호 헌의(獻懿). 영조의 5대손(五代孫)이며 고종의 아버지. 왕족에 대한 안동김씨의 감시가 심하자 보신책(保身策)으로 불량배와 어울려, 파락호(破落戶)로서 궁도령(宮道令)이라는 비칭(卑稱)으로 까지 불리며 안동김씨의 감시를 피하다가, 결국에는 둘째 아들 명복(命福:고종의 兀名),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에 봉해지고 어린 고종의 섭정이 되었다. 구한말 문호 개바오이 압력과 민비와 갈등등으로 유폐와 정계은퇴를 한 조선후기 왕족, 정치가

(4) 이미지 창조 유형

이미지 창조 유형의 분장은 기획 의도에 따라 대중적이고 인지도 있는 스타를 캐스팅해서 작품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의도한 경우이다. 산업이 문화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로 변모하면서 특히 주·조연 배역의 한 형태로 점차 자리 잡고 있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이상적인 주연 여배우는 나이는 18세에서 22세 사이, 키는 160cm에서 170cm 사이여야 하고, 잘 정돈 된 몸매와 특출나게 아름다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 영화 연예 잡지나 대중문화 종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연 여배우 캐스팅에 대한 외부 조건이다. 이러한 캐스팅 조건은 우리에게도 상당 부분 적용된다. 특히 대중문화의 주요 흐름을 결정하는 문화 상품의 소구력이 10~20대에게서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 가요 등 대중문화 콘텐츠 대부분이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그래서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10~20대의 위주의 획일적인 대중문화가 범람한다.”⁷¹⁾ 아래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장군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김두한의 생(生)을 다룬 영화에서는 무명이었던 박상민을 단지 김두한의 타입 캐스팅의 형태로 캐스팅하여 그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는데, 얼굴 전체적인 틀이나 눈매 꼭 다문 듯한 두 입술, 우수 어린 눈 등이 김두한의 실존인물을 변형 발전시키기에 가장 적당한 외모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2003년의 방영된 TV 드라마 작품 《야인시대》의 김두한역의 안재모와 김영철의 캐스팅은 다소 의외였다. 2003년 《야인시대》의 김두한은 왕성한 문화 상품의 소구대상의 기호에 맞춘 다소 이쁘장한 외모에 반항적인 느낌의 안재모를 캐스팅 하여 큰 성공을 거뒀고, 높은 시청율로 인해 지금까지의 김두한 배역 중 가장 김두한에 가깝고 자연스럽다는 평가까지 얻게 되었다.

분장에서도 실제 김두한의 일자 눈썹에서 조금은 올라간 형태의 눈썹 분장만을

71) <http://www.korealink.co.kr/조무/200302/w2003021917094061510.htm>, 한국일보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극중 이미지와 연기자 개개인에 의존했다. 두 연기자의 당시 인기는 고조된 상황이었고 다소 의외의 캐스팅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소구대상을 만족 시켜준 결과로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청년시절의 김두한역(안재모 분)은 시청자의 기호에 맞는 캐릭터를 창출하는 방법론적으로 머리 스타일은 고증을 탈피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스포츠형이 아닌 조금은 멋을 부린 뒤로 넘긴 머리 스타일을 했다. 눈썹은 약간 각진 모양으로 날카로움을 강조해서 표현했다.



<그림 57>
김두환 실제



<그림 58> 김두한역
MBC 왕초



<그림 59> 김두한역
장군의 아들



<그림 60> 김두한역
좌(장년, 유년, 청년역)



<그림 61> 김두한역
(청년) 안재모 분



<그림 62> 김두한역
(중·장년) 김영철 분

“김두한역의 김영철은 처음에 연기자의 머리가 곱슬머리인 이유로 머리카락을 전부 펴서 앞이마에 내려 나이 어린 인상의 느낌으로 촬영을 했으며, 장년의 김두환으로 접어들면서 강인한 인상을 표현하려고 뒤로 넘긴 머리를 하여 선 굵은 남성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노년시절에는 국회의원 머리로 고중에 따라 옆으로

넘기는 컨셉을 잡고 있으며 무식한 인상을 주기 위해 눈썹을 다른 배우들보다 짙게 하였고, 점점 연기패턴도 무식함을 강조한 유형으로 표현하고 있다.”⁷²⁾

《야인시대》의 안재모와 비슷한 동기의 배역의 예로 화제를 모았던 장희빈역의 김혜수의 경우를 보면, “10대 후반부터의 장희빈 역할을 한 김혜수의 캐릭터 부적응은 실제 나이와 극중 나이의 극복하지 못한 것에서 초래됐다. 이전 장희빈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장희빈역을 맡은 김지미, 남정임, 윤여정, 이미숙, 전인화, 정선경이 21~24세였던 데 비해 김혜수는 32세였다.”⁷³⁾

‘장희빈’은 극중 배역이 악역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푸근한 인상의 김혜수를 캐스팅, 방영 초기부터 ‘잘못된 배역 선정’이 아니냐는 지적⁷⁴⁾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몹시 부정적인 기사만 가득하다. 처음 《야인시대》의 주인공이 안재모였을 때 역시도 잘못된 캐스팅이라고 말이 많았지만, 결과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새로운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혜수는 악평을 듣고 있다.

장희빈⁷⁵⁾은 한국의 전형적인 요부(妖婦)의 대명사이다. 이전 배역의 연기자들은 차가운 아름다움과 표독스러움을 내재하며 장희빈의 극중 성격을 충분히 표현해 내었으나 김혜수는 동그랗고 악의 없는 인상과 여배우에 비해 큰 체구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는 장희빈의 이미지와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분장론적 측면에서도 너무 두껍고 짙은 입술의 분장으로 시선이 집중되어 분노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하

72) 드라마 《야인시대》 분장사 이무삼 인터뷰

73) <http://www.korealink.co.kr/whan/200302/w2003021917094061510.htm>

74) 부산일보 2003년 4월 1일자 신문

75) 조선후기 숙종의 빈(嬪), 왕자 윤(脣:景宗)을 낳고 소의 장씨는 희빈에 오르고, 상소한 송시열, 서인들은 유배되어 사사(賜死)되었으며 남인(南人)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己巳換局).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올리자 서인 박태보(朴泰輔) 등 80여 명이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참혹한 형벌을 받았다. 1694년(숙종 20) 인현왕후의 폐출을 후회한 숙종이 남인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켜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켰다. 1701년(숙종 27) 인현왕후를 저주한 일이 발각된 장희빈은 오빠 장희재(張希載)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 두산대백과사전

나의 이유인 것이다.



<그림 63> 장희빈역
정선경 분



<그림 64> 장희빈역
김혜수 분

3. TV 드라마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분석 결과

영상문화는 일반적이고 극히 다수인 수용자즉 시청자와 관객에 의해 그 흐름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들의 기호에 맞는 배역선정(casting)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극대화 시키는 분장작업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영화와 영상의 발달로 인하여, 보다 정밀하고 자연스러운 분장기술을 요구되고 있는 현 실정과 작품 속 정형화 되지 않은 배역의 인물을 작품 속 캐릭터로 분장해야 하는 상황이 증대되는 이중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 시대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분장인들은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완벽한 기술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인상학이 성격분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창조적 분장 작업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기존의 외국에서 들어온 골상학에 의존, 각 얼굴 부위의 이미지만을 참고삼아 획일적인 분장에서 머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상학의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 계발로 창조적인 분장작업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매체 발전에 따른 분장 재료, 기법의 개발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보다 정확한 각 분장 제품에 대한 정보습득과 재료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제조회사와 분장사는 긴밀한 정보교환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적 운영에 머물고 있는 사설학원 중심의 분장 인력 배출보다 공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을 통한 실습과 이론의 균형잡힌 공교육이 차츰 정착화되며 분장 전공학과가 생겨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분장사들과 분장 관련업체간의 협업 체계구축과 산학 협동 연구의 길을 넓히고 분장기술 관련 국내외 정보를 신속 원활하게 교환 할 수 있는 분장 연구소를 비롯한 전문 연구 및 정보교환기구의 설립이 요청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분장의 재고를 가져와 분장 영역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TV 드라마 성격분장은 드라마 제작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의 양상으로 일회적 소비를 위한 제작 양상과 높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드라마는 사전제작이 아닌 대부분 시간적 급박함 속에서 제작된다. 사전 제작의 필요성은 드라마 제작의 완성도를 위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시간의 급박함 속에 분장사의 업무 시간 또한 급증하면서, 드라마 성격분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간에 쫓겨 제작되는 드라마는 작품의 저질화는 물론 졸속분장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아직도 대부분의 분장들이 분장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분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성격분장은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장사 개개인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자질을 먼저 향상시키고 작업에 임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설문조사중 “분장사가 고쳐야 할 점으로 연기자는 연구하는 자세, 배역에 대한 이해, 연기자와의 충분한 대화, 전문적 분장 개발 및 창조, 다양한 재료 및 기법 개발, 전문화 등을 꼽았다. 반면에 연출가는

연구 개발, 충분한 사전 제작, 사전 협의 및 작품 분석을 지적했으며, 분장사는 재료 및 기법개발, 자질 향상, 다각적인 교육, 창조적 자세, 작품의 충분한 분석 및 이해를 들었다.”⁷⁶⁾

<표 16> 설문 응답자 분포 (단위: 명)

	PD	연기자	분장사	합계
20대	5	54	28	87
30대	36	57	66	159
40대	9	60	12	81
50대 이상	22	48	11	81
합계	72	219	117	408

위의 설문 조사에서 나타나듯 분장과 제일 밀접한 연기와 연출자는 분장사에게 제일 필요한 첫 번째 항목으로 ‘분장사의 연구하는 자세’를 지적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즉 분장사의 자체 설문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지적한 ‘재료의 기법개발’의 항목에서 분장사와 연출자, 연기의 의식차이는 곧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작품을 분석하고 성격을 창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한 연구하는 자세를 절감하지 않고 분장사 스스로는 재료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제작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매체가 발전하면 할수록 리얼하고 구체적인 분장 요구와 시간의 제약은 갈수록 심해진다. 분장사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해도의 증대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작업과정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적합한 테크닉 개발을 위한 연구가 병행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장의 이론적 체계적 수립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분장재료 및

76) 『한국 드라마의 성격 분장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85

기법 개발이 연계되고, 특수 분장과 접목되어 한층 다양하고 독창적인 캐릭터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연구 논문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대부분의 TV 드라마 분장에서 분장계획서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대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분장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았다. 전장에 서술했듯이 분장의 계획서는 하나의 설계도이며 창조적인 분장과 통일성 있는 분장을 통하여 작품의 질을 높이고 분장사 개개인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스태프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그 신뢰감은 곧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서 분장작업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를 통해 살펴본 동양의 인상학은 연구는 체계적인 이론정립의 하나의 작은 시작이며 인상학의 충분한 인식과 연구를 통하여 성격분장을 완성시키고 창조이며 독창적인 성격분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제 IV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TV 드라마에서 연기자가 성격분장을 통하여 만들어진 극중 인물의 이미지가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등장인물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성격분장이 어떠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분장이 인상학의 응용과정을 거치면서 성격분장의 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작품의 극적인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스 미디어가 산업이 지배를 받는 시대, 대부분 사기업으로 영위되고 있는 오늘날의 매스 미디어는 이윤의 획득과 경영의 안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내용의 저속화와 안이함 및 타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소구대상인 시청자나 관객의 기호에 맞추어가는 배역선정(casting) 환경과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많은 방송사들과 각종 영상매체 제작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제작수요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타입 캐스팅에 의한 작품 제작이 어렵게 되어 지금은 작품 배역선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었다. TV 드라마는 극중 배역 자체가 스타급에 의존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으며, 케이블 TV등 많은 방송 매체들이 생기면서 스타급의 연기자 모셔가기 경쟁을 부추기며 이른바 스타매니저 방식의 형태인 짜맞추기 배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로 인해서 사전 제작이 거의 없는 TV 드라마 제작의 현주소에 비춰볼 때, 제작의 시간과 비용 관계상 특수 분장을 할 수 없는 여건, 배우들의 겹치기 출연에 의한 분장 시간의 감소, 드라마 제작의 급조화등 매스 미디어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제작환경은 오히려 시간의 제약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거기

에 반하여 소구대상들이 선호하고 평가하는 기준 또한 달라지고 있고, 영상매체의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성격분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분장은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이미지, 특히 안면의 변형은 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개인적 기호의 변화나 그 시대의 유행, 제작 환경 등이 어떠한 형식으로 작품의 극중 배역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작품의 성격에 맞는 캐릭터를 완성하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분장사의 역할과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데, 이와 함께 제작환경 역시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분장인 스스로가 드라마 작품에 대한 극중인물에 대한 분석을 완벽히 끝내고, 극중인물을 표현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물 같은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거의 등장인물의 인물 윤곽선을 멋있게 또는 이쁘게 만드는 뷰티메이크업(beauty make-up) 단계로 전락한 것이 TV 드라마 분장의 현실이다. 전문화 성격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다른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다른 분야와 복합적으로 긴밀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분장사는 작품이 원하는 것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분장사는 이제 단순히 얼굴을 분장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연구로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 시켜가야 한다. 주어진 적은 시간에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장에 대한 기초 이론과 분장 기술의 완전한 습득, 분장의 환경적 요인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인상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관찰 대상에 대한 느낌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결과이며, 인상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이미지를 결정하듯, 인상학에 의한 성격분장의 효과는 얼굴의 미세한 부분부터 큰 이미지까지 포괄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드라마 작품이 인상학에 근거하여, 작품에 가장 적합한 배역을 캐스팅하여, 인물의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연기자를 선택한다면, 분장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작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소구대상(시청자)들이 인식

되어져 왔던 정형화된 이미지의 다양한 변화요구로 인해서, 분장은 좀더 자연스럽고 내면적이며 포괄적인 면을 요구하게 되었고 초상분장 또한 기존의 교정 분장을 탈피하여 배역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어필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분장사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한정적이고 정형화된 분장에 만족하지 않고, 체계적인 인상학 연구를 통해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해 내는 분장으로 이어질 때, 분장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게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분장의 가장 큰 목적은 배우가 연기하는 역의 특성을 자기화하도록 돕는 데 있으며, 극중인물 창조과정에서 인상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분장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인상학이 분장작업에 있어 이해와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의 더 많은 연구와 체계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TV 드라마 분장의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사전제작과 같은 제작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환경적 요인으로서 분장사 스스로가 개선하기 힘든 부분이라면, 분장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분장작업의 계획성과 그 계획성을 위한 극중인물의 분석능력을 키우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촬영에 수반된 각종 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혀 방송의 매커니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분장재료와 기법 개발등이 수반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산업과 교육의 발전도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상학 부분에서 안면 분장에 필요한 각 부위별 이미지만을 제시하였다. 관상이라고 흔히 불리는 인상학은 자료가 방대하고 각각의 이론마다 인상을 해석하는 관점도 틀리다. 그러므로 분장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상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며, 인상학에 근거한 분장론적 측면과 효과 역시도 연구되어야 될 것이다.

본 논문을 계기로 분장사들이 다양한 창조적 이미지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분장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대영, 『한국 분장예술』, 지인당, 1999
- 국립 민속 박물관 편, 『한국인의 얼굴』, 도서출판 신유, 1994
- 김문기, 『얼굴로 보는 평생 운명학』, 가교, 1994
- 김성현,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1992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8
- 『두산 대백과』, 두산동아출판사
- 『대세계 백과 사전 16. 예능』, 태극 출판사, 1975
- 리처드 도킨스 / 홍영님 옮김, 『이기적 유전자』, 서울 : 을유문화사, 2002
- 민중서림 편집국, 『옛센스 영한사전』 서울 : 민중서림, 2001
- 박수명 외, 『분장(공연예술 총서 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1
- 박승배 (1991) . 한국의 무대 공연에 나타난 분장에 관한 연구
- 윤명중, 『얼굴미학』, 동학사, 1989
- 이정환, 『얼굴보고 사람을 아는 법』, 도서출판 상아, 1995
- 임재룡, 『MBC 방송 아카데미 교재』, MBC, 1996
- 장우식, 『분장예술론』, 한성대학교 예술 대학원 교재
-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낮』, (주) 사계절 출판사, 2000
- 최영순, 『가정인상학』, 명문당, 1989
- 태평양, 『태평양 뷰티 아카데미 교재』, 태평양, 1995
- 패트릭 터커 / 방은진 옮김, 『스크린 연기의 비밀』, 시공사, 1999
- 한국방송개발원, 『방송 환경 변화와 TV 드라마의 대응』, 1994
- 한국 문화 예술진흥원, 『분장』, 예니, 1988

SBS 방송아카데미, 『방송과 프로그램 제작 제2권』, 서울 : SBS 방송아카데미,
1996

〈외국 문헌〉

Herman Buchman, Film and Television Make-up, Waston-Guptill,
Publication/New York, Pitman Publish/London, 1973, 1978.

Vicent J-R Kehoe, Profession Make-up Artist, Focal Press/Boston, London,
1985

〈논문〉

권경애, “눈 메이크업이 인상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봉천, “한국 드라마의 성격 분석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01

김성희, “성격분장의 고찰 ”,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용선, “HDTV 분장 환경에서의 피부표현색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태미, “한국인의 얼굴 이미지 표현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1

박복만, “TV 드라마에 반영된 시대상과 장르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양대 언론
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박승배, “한국의 무대 공연에 나타난 분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대학 석사
학위 논문, 1991

옥미나, “얼굴표정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한명숙, “무대분장의 구상에 대한 연구”, 대구 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8

〈정기 간행물외 기타〉

장미화, 노효경, 『분장과 인상학에 관한 상호 연관성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2000.

강경화, 『Fine Perfoming & Visual Arts에서 필요로 하는 성격분장에 관한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1998.

박수명, 『영상미술세계의 이해』 중 “분장과 영상과의 관계”

서울방송 (SBS) 분장자료

김봉천 분장사 (SBS) 드라마 천년지애 인터뷰

김혜정 분장사 (SBS) 드라마 야인 시대 인터뷰

이무삼 분장사 (SBS) 드라마 야인 시대 인터뷰

유승태 분장사 (MBC) 인터뷰

장우식 분장사 (SBS) 아카데미 분장 교수 인터뷰

장형일 연출가 (SBS) 드라마 야인시대 인터뷰

정완식 분장사 (SBS) 인터뷰

〈인터넷〉

<http://baruninc.com>

<http://tech.arirangtv.com>

<http://wizard.sbs.co.kr>

<http://www.drama21c.net>

<http://www.jumhome.com>

<http://www.kimkwangil.com/>

<http://www.korealink.co.kr/whan/200302/w2003021917094061510.htm>

<http://www.ilovemakeup.pe.kr>

ABSTRACT

Study of Images by Type of Character-based Make-up

- In View of Characters Starring in a TV Series Titled "The Days of the Outsiders" -

Lee, Mi-Ae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s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ansung University

When making a decision of any nature, there is always a purpose for which it is made. For instance, businesses have the purpose to make profits and games or sports vie for greater points. Likewise, the best decision for whomever that make it, is one that accomplishes the purpose intended or maximizes the value of the target intended.

Among the variables by which a decision is made include diverse information and materials. What obviates the objective nature of the information is selecting or deciding on a person. Resumes portend objective information, however, whatever they may represent, they do not represent what is inside that person. As can be seen in numerous Korean sayings, selecting a person is perhaps the most difficult task.

In this context, physiognomy is likely to have had contributed to appointing subordinates by the rulers in the past, marriages among the

laymen, and business transactions, among others. Since it bases its logic upon the reality while utilizing statistical methods, physiognomy is scientific in that it differs fundamentally from other prognostication or fortune telling.

Then how is a human portrayed in a television drama or movies that deal significantly with the dramatic qualities or natures of life? Scripts are read in silence as in the case of the novels, but they never will be any more than the scripts. Scripts are different from the novels in that they originate by and in action. Originally, drama is from the Greek word "dran," which means "to act." As conversations involve something in motion, in their background is always an action. Hence, writing a script does not always fully deliver by or through language, in which respect scripts could only be less than complete. For completion, therefore, scripts require actors naturally.

In a drama where a lot has to be portrayed and delivered, it is a result so natural that each character could not hang what he or she ought to show on his or her chest. Assuming that a drama requires emotion and catharsis resulting from it, any action prevents elements that intervene with the interjection of emotional qualities. Such actions certainly prevent the audience from emerging themselves emotionally. That said, the most efficient way of portraying characters in the shortest time would be the physiognomy based upon statistical methods, the majority which tend to involve face. Thus, that the physiognomy has a great influence over how characters are portrayed is a natural consequence.

Human impressions have a dual quality through which an entirely different character could be created. They might change by the environment

and artistic standards vary by the trends in each time period.

This study has undertaken investigations of how personalities of the characters are created via the window of the physiognomy and how they continue to develop. To maximize the effects, characters and their types in dramas were examined rather than the actual existing persons. Further, how the changes in the characters, not based upon the physiognomy, affect the work examined was studied. Since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our culture by large has undergone industrialization, and the television and movies alike are being digitalized. While that the characters in every work are assigned on a need basis rather than by 'type casting' as a result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character-based makeup continue to undergo changes. In this light, a more scientific and organized preparation, while scholarly investigating to accomplish technology development in a Korean way for better sentimentality in detail, has been called for in view of the history of the research studies conducted.

To counter such anticipated issues,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and build data based upon the physiognomy that provides a basis for character-based makeup, the use of the data by which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ow is of the utmost need. Furthermore, to follow up with this initiative, institutional mechanisms enabling makeup specialists development via systemic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must be in place.